

양희은·강석우의 여성시대

2009 + 08 + August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10~11:00

양희은·강석우의

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004 여성시대가 흐르는 곳

수박 익어가는 소리

008 이달의 편지

잃어버린 단골집 외

052 여성시대 가족을 찾아

꿈과 희망이 없는 건 용서 못 해요

058 행복을 찾는 사람들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성공비결"

065 여성시대 꾸러미

간호사가 낳은 아이? 외

076 아버지의 육아일기

아버지의 권위

079 성장보고서

아기는 다 알아듣는대요

082 부부클리닉

잘했군, 잘했어! 코드를 맞춰라

086 우리나라 구석구석

강원도 영월

090 대중문화 산책

<무한도전>의 도전

092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모녀 삼대의 여행

094 강석우의 스튜디오에서

미리 다녀 온 유럽

096 이PD의 용쟁호투

격투기 사랑

098 한 장의 생각

라파엘로의 <라 포르나리나>



2009.08+August

양희은·강석우의 여성시대입니다 진행_양희은, 강석우 프로듀서_이은주, 이창호 방송_MBC 라디오 매일 아침 9:10~11:00 MBC인터넷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_02-368-1500~3, 문의_02-789-1339 주소_(150-604) 서울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400호 여성시대 표지_안홍범

여성시대/월간지/비매품/2009년 8월호 발행_2009년 8월 10일 발행인_(주)문화방송 대표이사_엄기영 등록번호_라-5413 편집·제작_B&M 커뮤니케이션(02-2272-6046) ※본지는 한국 도서관리 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수박 익어가는 소리

전북 고창군 공음면의 정미옥 씨를 찾아서



세상사처럼 둥굴둥굴, 혼자서가 아닌 여럿이 함께 먹어야 하는 수박. 한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여름과일의 대표선수가 수박이다. 여름과 동의어인 이 맛난 수박과 함께하는 여성시대 가족 정미옥 씨를 찾아 전북 고창으로 향했다.

이름값 꽤나 하는 고창 수박이 5,000평의 대지를 메우고 있는 맑은 한마디로 장관이다. 일렬종대로 나란히 줄맞춰 있는 커다란 수박은 보는 순간 입 안가득 침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일하다가 쉴 수 있는 수박밭 위
원두막이 있는데
뭐가 부러우랴.”

이 고인다. 피약벌 아래 신생아 같은 수박을 돌보는 부부의 손은 바쁘기만 하다. 순을 잘라주고 수박이 제법 모양새를 갖추게 되면 이리저리 어린아이 돌보듯 해야 한다. 햇벌이 강한 날은 순으로 수박을 덮어주고 비가 많이 오면 영양제를 뿌려주고 이리저리 골고루 익으라고 하나하나 손으로 돌려주며 지극정성을 쏟아붓는다. 정미옥 씨가 수박농사를 지은 지는 결혼한 햇수 만 큼인 11년째.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수박밭을 이제는 부부가 꾸려간다.

도서대여점을 하던 쿨대 높은 노처녀였던 미옥 씨는 남편을 만난 지 석 달 만에 시골살이를 결심하고 결혼을 강행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다’는 그 노래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농사를 짓는 일이 그리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지금도 그 기대는 접지 않았다. 소금땀을 흘려가며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일하다가 쉴 수 있는 수박밭 위 원두막이 있는데 뭐가 부러우랴.

자연과 노동과 가족이 어우러진 시골살이의 참맛. 정미옥 씨는 그 맛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간다. 바람소리, 풀벌레소리, 햇벌 부서져 내리는 소리, 수박 속이 차오르는 소리,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며. ♥



Letter 01_ 잃어버린 단골집

Letter 02_ 아빠가 잘못했잖아!

Letter 03_ 음식물 재사용

Letter 04_ 남편을 보내고

Letter 05_ 결혼식 하객 도우미

Letter 06_ 아내의 전화번호는 1번

Letter 07_ 그때 그 사람

Letter 08_ 돈보기와 노안

Letter 09_ 엄마 같은 올케언니

Letter 10_ 살아 있어 고마운 것들

Letter 11_ 답은 어디에

Letter 12_ 부엌에서 먹는 밥

Letter 13_ 여러 번 밥상을 차리는 일

• 일러스트_ 김금복



잃어버린 단골집

● 글_김선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하루종일 이불 빨래를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남편은 “빨래는 당신이 하는 게 아니고 세탁기가 한다”고 하지만 세탁기 5번 돌리면서 마지막 행굼 때 섬유유연제를 넣고, 아이 교복과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고 나니 벌써 저녁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안 그래도 살이 쪼뼛 빠지는데 웬일로 남편이 “우리 오랜만에 순댓국이 나 먹으러 갈까?” 했다. 나는 저녁밥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기쁨의 웃음을 날렸고, 순대를 좋아하는 두 아이도 덩달아 신이 났다.

‘순댓국을 먹은 지가 언제더라, 한 달은 된 것 같아.’

에어컨 바람을 쐬며 순댓국에 소주 한 잔 먹을 생각에 가는 동안 내내 입에 침이 고였다. 하지만 순댓국밥집에 가서 보니 가게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간판이 칼국수집으로 바뀐 걸 보니 내부수리를 하는 중인 듯싶었다. 어쨌든 순댓국은 안 하는 게 틀림 없었다.

“순대가 났새도 안 나고 참 맛있고, 이쭀마도 친절했는데 왜 문을 닫았을까?”

“왜 닫았겠니?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지. 요즘은 모두 대형화가 되잖아.”

“대형화든 소형화든, 맛으로 승부를 하면 되지. 맛있었잖아!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였는데…”

“단골손님만으로 유지가 되냐? 우리도 거의 한 달 만에 간 것 같은데…”

“이왕 나왔으니 냉면이나 먹자”며 냉면집으로 투덜거리며 가는 길, 참 속



상했다. 요즘 들어 단골가게가 하나둘 문을 닫았다.

의자가 6개 있던 작은 순댓국집은 우리 가족 단골집이었다. 가족 모두 순대를 좋아하기에 자주는 못 가더라도 가끔씩 들른 게 벌써 6년째다. 인상이 참 좋던 주인아주머니는 우리 집 작은 아이를 예뻐하셔서 가끔 순대를 조금 포장해 주시기도 했다.

“오랜만에 왔네” 하며 반기는 아주머니를 다시 볼 수 없는 게 서운했다. 집 앞 작은 슈퍼마켓도 지난달 문을 닫았다. 5분만 더 걸어가면 대형마트보다는 조금 작지만 모든 물건을 갖춘 마트가 있어서 만 원 이상이면 배달도 해주고, 한 곳에서 생선 · 고기 · 과일 등을 모두 살 수 있다. 그러니 동네 작은 슈퍼마켓은 장사가 잘 안 된다.

소주는 150원, 맥주는 100원이 비싸고, 아이스크림은 30%밖에 세일이 안 되는 그 슈퍼마켓은 우리 집 단골이었다. 좀 비싸더라도 혹 뭐 사서 들고 오다가 주인아주머니 만날까 봐 미안해 슈퍼마켓에서 팔지 않는 건 시장에서 사더라도 슈퍼마켓에서 파는 건 꼭 사게 된다. 1,000원도 아까워 함부로 쓰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참 이상한 일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 슈퍼마켓을 열심히 드나들었다. 남편은 담배를 사고 퇴근길에 맥주를 샀다. 아이들은 아

이스크림과 과자를 샀고, 난 라면 · 두부 · 비누 등을 샀다.

하지만 그 가게도 문을 닫았다. 아주머니가 주인이셨는데, 모두 팔고 아내네 집으로 가셨다. 그 자리에는 미장원이 새로 생겼다. 난 지나가다가 가끔 들러 커피도 얻어 마셨고, 아주머니는 슈퍼마켓에 간 아이들 손에 껌이나 사탕을 쥐어주시곤 했다.

아주머니는 이사를 가면서 팔고 남은 쓰레기봉투 묶음을 내게 주고 가셨다. 아주머니는 “가격이 비싸서 다른 이웃들도 다른 가게를 이용했는데, 맥네 가족은 한결같이 가게를 드나들었다”며 고맙다고 하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그 앞을 지날 때면, “경남아! 시장 가면 나 자반한 손만 사줘” 하는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듣는다.

남편과 가끔 맥주를 마시던 동네 호프집도 문을 닫았다. 부부싸움을 하고 화해를 할 때도 들르고, 기분이 좋아 맥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들렀던 곳이다. 안주 없이 생맥주만 시켜도 마른안주를 아주 잘 주던 집이다. 강냉이도 주고, 김도 주었다.

생맥주 너 칸에 만 원밖에 안 해 계산할 때 미안해하면 “다음에 오셔서 비싼 거 시켜 드세요” 하고 웃던 녀석 좋은 아저씨와 아줌마가 같이 가게를 운영했다. 손님이 없을 때는 가끔씩 작은 잔에 맥주를 따라 옆에서 같이 드셨다. 남편이나 나나 정말 마음 편한 곳이었었는데, 문을 닫았다. 호프집은 아직 아무도 인수하지 않았는지 문만 굳게 잠겨 있다. 사람 사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나는 이런 단골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게 속상하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하면 “요즘은 손님 많아요?” 하고 진심을 담아 인사를 나누던 곳이었었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하다. 가게만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이웃들을 잃어버렸다.

신문을 보니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경제가 조금은 안정세로 들어섰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 먼 것 같다. ♥



아빠가 잘못했잖아!

● 클_애청자

얼마 전, 한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에서 ‘남편들이 제일 서운할 때가 자식들이 무조건 엄마 편을 들 때’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조사 결과를 보면서 “와! 맞아. 우리 집이랑 똑같네.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완전 내가 죽일 놈 되는 거잖아” 하고 혼잣말을 해가면서 텔레비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를 보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제가 “나도 헬스 좀 끊어서 운동이나 해 볼까? 마흔이 넘으니깐 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헬스까지 끊어서 운동을 해요. 아파트 몇 바퀴 돌면 되지. 그리고 나는 당신이 뭘 끈기 있게 하는 걸 보질 못했어. 비싼 헬스 끊어 놓고 며칠 다니다 그만두려고? 그럴 거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지, 돈만 아까워. 열심히 하면 내가 일 년 치라도 끊어주지.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고 하더군요.

아니 헬스를 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요즘 자꾸 배가 나와 운동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꺼낸 이야기인데, 두 눈에 불을 켜고 절대로 헬스를 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아내의 말이 야속하게 들려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누가 헬스장을 다닌대? 그냥 한 번 꺼내본 이야기지? 내가 헬스 끊었다고 하면 아주 큰일 나겠네.”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귀 똥 놀이 성낸다

고 사과를 해야 마땅한 아내는 저에게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당신이 뭘 끝까지 하는 걸 못 봤으니깐 하는 이야기지. 매일 대책 없이 일단 저질러 놓고...” 하면서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자 자연스럽게 방에 있던 큰딸이 방문을 열더니 “엄마 · 아빠 조용히 좀 싸우실래요? 저 기말고사 시험 공부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방에 들어가서 싸워요” 하더군요.

여기에서 싸움을 그쳤어야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번에 애들 시험 못 보면 전부 당신 책임인 줄 아세요. 애들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당신 때문에 공부를 못 하고 있잖아요” 하더군요.

제가 “아니, 여기서 왜 애들 시험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애들 시험을 못 보면 내 책임이라니. 지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왜 내 책임이야?” 하면서 싸움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거실로 나온 큰딸이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면서 “아빠는 진짜 왜 그러세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아빠는 어떻게 싸울 때마다 엄마를 이기려고 그러세요? 엄마는 회사도 다녀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아빠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왜 만날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요?” 하며 엄마 역성을 들었습니다.

그날 일은 완전 아내의 잘못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초등학교 딸애는 자기 엄마 편을 들어가면서 엄마가 불쌍하다고 저를 나무라더군요. 이에 질세라 작은 딸아이까지 합세해 눈물까지 흘리며 “맞아, 아빠는 만날 술 먹고 늦게 오면서 엄마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큰소리 내. 아빠 미워. 빨리 엄마한테 사과해”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두 딸들이 퍼부어대고 옆에선 아내까지 버티고 있으니 순간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날 있었던 싸움의 원인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도 구차하고 또 아이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해서 “그래 알았다. 전부 이



못난 아빠 잘못이다. 니 엄마랑 잘 살아라”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큰딸은 살림벌천이고, 아들 둘보다는 딸 둘이 훨씬 낫다고 하며, 딸들은 엄마편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일은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 집에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전부 잘못해 부부싸움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들은 집에서 큰소리만 냈다 하면 “아빠! 왜 그러세요? 아빠가 잘못하셨잖아요” 하면서 엄마 역성들기에 바쁩니다.

처음엔 이런 딸애들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자식 키워 놓으니 부부싸움 중재도 해주고 이런 맛에 자식 키우기가 싶었지요.

큰애가 일곱 살 때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며칠 동안 냉전중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집에 며칠 동안이나 냉기가 흐르는 걸 느꼈는지 한글을 깨우친 딸이 저에게 작은 쪽지를 하나 주더군요.

‘아빠!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세요. 싸우지 마세요. 아빠랑 엄마는 매일 저에게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시면서 어른들이 싸우면 안 돼요. 둘이 서로 사랑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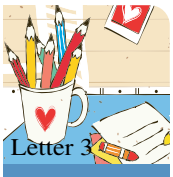
그 쪽지를 읽고 났더니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싸움을 오래 했고, 어린 딸아이가 얼마나 불편했으면 이런 쪽지를 내게 주었나 싶어 딸아이 덕에 오랜 냉전을 끝내고 화해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아내와 화해를 하면서 저와 아내는 딸아이 덕분에 화해도 하게 되었다며 무척이나 좋아했고 뿌듯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두 딸아이가 부부싸움을 중재하는 게 아니라 싸움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내 또한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딸아이들이 자기편을 들어주니 좋기만 한 모양입니다. 든든한 방패막이가 생긴 것처럼 의기양양해지기 일쑤니 부부싸움을 하면 제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100% 완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원래 부부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엄마 편밖에 들 줄 모르는 딸들 때문에 100% 완패는 당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부부 싸움이 오래 가지 않고, 또 아이들 앞에선 늘 말조심을 하게 되니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요.

그래도 가끔은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는 지원군 한 명쯤 있어서 제가 100% 잘못을 했어도 보란 듯이 의기양양하게 부부싸움에서 이겨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어이, 우리 두 딸들! 가끔은 아빠 편도 들어주라, 알았지? 너희들 덕에 엄마가 매일 기세등등하잖니? 한번쯤 이 힘없는 아빠 편도 들어줘. 공부 열심히 하고...” ♥



음식물 재사용

● 클_유영남 | 경북 경주시 배반동

“아 이고야! 이기 뭐꼬? 반찬을 주다 마능꼬? 초잡꼬로 상추가 이기 뭐꼬? 사람이 서인테 상추 녀장으로 누구 입에 붙이노, 더주소!”

“예, 예! 드시고 더 주문하세요. 얼마든지 더 갖다 드립니다.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더 갖다 드릴게요. 자꾸자꾸 시키세요.”

“그래도 그렇지, 이기 뭐꼬? 사람 기분 나쁘게, 딱 한것가락밖에 안 되겠네.”

“예, 상추하고 김치 더 갖다 드릴게요. 밥도 더 드세요. 추가 밥값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지난 4월 1일 개업한 저희 식당에서 자주 오가는 대화입니다.

저는 경주에서 남편과 같이 조그마한 기사식당을 18년째 하고 있는 ‘아지매’입니다.

작년 10월까지 한 곳에서 쭉 식당을 하다가 건물주와 임대료가 맞지 않아 문을 닫고, 올 3월까지 쉬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근처에 제법 잘되는 기사식당을 인수받아 리모델링을 하고 야심차게 새로 장사를 시작했지요.

첫날부터 점심시간에는 13개의 테이블이 꽉 차고 손님이 서서 기다리기가 지 했습니다. 대형 화물차 기사님, 골프 치러 가는 사장님들, 울산 자동차회사에 납품하는 차량 기사님 그리고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 오시는 손님들이 주로 이런 분들로 늘 고정손님입니다.

저희 집 고정 메뉴는 짬뽕 · 낙지볶음 · 돼지볶음 · 오징어볶음 · 청국장 ·

된장찌개 · 김치찌개 등으로 단출합니다. 그 중에서 ‘짬뽕’을 가장 많이 드립니다. ‘짬뽕’은 낙지와 돼지고기를 섞어 볶는 걸 말합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는데, 이상한 건 손님들이 반찬을 거의 드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볶음이나 찌개를 주로 드시니까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하루는 같은 마당을 쓰고 있는 타이어집 사장님이 점심을 드시러 오셨는데, 여전히 반찬을 안 드셨습니다. 생선도 굵고, 나물도 맛깔나게 무치고, 온갖 정성을 쏟은 반찬에 손을 안 대는 걸 보고 퍼뜩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타이어집 사모님이 예전에 이 식당에 더러 일을 거들어 드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하! 반찬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안 드시는구나.’

바로 그거였습니다. 타이어집 사장님처럼 반찬이 재사용 된다는 걸 아는 분들은 반찬을 아예 드시지 않았습다.

다음날도 타이어집 사장님이 오셨더군요. 식사하는 동안 옆의 상을 치울 때 남은 반찬을 냄비에 죄다 쏟아 부었습니다. 슬쩍 옆 눈으로 보시는 듯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반찬을 짹다 드시고 더 달라는 반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치울 땐 약간 시끄러울 정도로 소리를 내며 남은 반찬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식당이 올해로 30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차장이 넓고 또 드나들기 편하다는 점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오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저희는 반찬을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또 손님들께 그걸 인식시키는 동안 정말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쩐지 아쉽니까? “여기 밥 반 공기만 더 주세요”라는 주문에 밥 한 공기와 밥을 덜어 드리기 위해 숟가락을 가지고 갔더니 반찬이 하나도 없는 게 아쉽니까? “우야꼬, 반찬이 하나도 없네. 뭐 좀 더 갖다 드릴까



요?” 했더니 손님께서 허허 웃으며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기 냄비에 양념이 남았잖아요. 비벼서 먹으면 되지요” 하셨습니다.

또 상을 내가면 쓰윽 훑어보고 반찬 여섯 가지 중에 두세 가지는 그냥 가져 가라고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반찬을 많이 안 먹어요. 이거면 됩니다. 다른 손님들 드리세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 온 듯한 손님 두 분이 반찬이 적다고 불만을 표시하더군요. 충분히 설명을 하고 더 갖다 드리는데도 계속 투덜거리는 겁니다. 그때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옆 테이블의 나이 지긋한 손님께서 한 말씀 하더군요.

“여보쇼! 거참 한 마디만 했으면 됐구먼. 요즘 어느 식당에서 반찬을 수북 수북 담아내능교? 남이 먹다 남은 거 수북수북 담아 주는 그기 좋은교? 이기 정상인기라. 우리 손님들도 달라져야 돼는 기라.”

그제야 그 손님들이 조용해지더군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른 손님께서 해결을 다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지금껏 식당을 하면서 요즘처럼 뿌듯하고 멋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저희도 반찬을 재사용했습니다. 제가 갓 28세 철없는 나이에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식당을 시작하고 보니 주방장과 일하는 ‘아지매들’에게 질질 끌려 다녔습니다. 반찬 재사용은 뭐 거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조금씩 담고 버리세요.”

누차 다짐을 쥐도 배고팠던 시절을 살아오셨던 당시 50, 60대 ‘아지매들’의 인식을 바꾸긴 어려웠습니다. 물론 손님들도 수북이 담아 드려야 좋아하셨고요.

상을 치우면서 손을 안 댄 반찬을 위주로 조심조심 재사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끔 말썽이 생겼습니다. 썰다만 총각김치가 나오거나 맑은 물김치에 고춧가루가 나오기도 하고, 김치찌개에서 통통 붙어터진 밥알이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고개 숙여 그때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반찬 재사용은 절대로 하지 않고 양심적이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식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남편을 보내고

● 글_이순덕 | 인천시 남구 관교동

건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다던 남편이 2005년 7월에 위암 3기말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고, 또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기에 암 전문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시 했지만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늘이 노랗다고 해야 맞을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그 당시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술을 안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남편을 가까스로 설득 해 8월 26일 위전절제술을 받았지만 수술 하루 만에 폐에 물이 차고, 고열에 시달리며 사람도 못 알아보는 등 며칠간 거의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수술을 안 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들을 걸 괜히 내가 고집을 부려 남편을 죽음으로 몬 것만 같아 죄책감과 두려움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제 날짜에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의사선생님의 지시대로 항암주사는 물론이고, 정기검진도 한 번 빼놓지 않고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재발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더 떨리더군요. 이제는 항암주사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고, 그저 삶의 연장, 즉 임시변통의 항암요법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씨앗을 뿌린 것처럼 깨알같이 암이 퍼져 위암 재발은 재수술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지요. 인천에서 일산 암센터까지 한 달에 두세 번씩 혹은 한밤에 일산 암센터 응급실에 가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복수가 많이 차기 시작해 주기적으로 빼야 했습니다. 복수의 색깔이 거의 피 색깔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색은 소변 색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독한 항암치료에 시달려 남편 체중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고, 위 수술 후 가뜩이나 식사를 조금밖에 못 했는데 재발 후에는 그나마 식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1월 3일 응급실에 실려가 입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검사저 검사를 하면서 항생제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11월 19일 담당의사로 부터 너무도 가슴 아픈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치료도 환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호스피스기관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비롯해 수많은 말을 했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치료에 임했는데, 그냥 말 한 마디로 이 병원을 떠나라니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실컷 울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에게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집에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암 덩어리로 인해 대변도 못 보고, 역류하기 때문에 물조차 마시질 못하는데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11월 22일 일산에서 부천에 있는 한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집에 다시는 올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처음 입원한 날, 저녁에 사발면 한 젓가락과 총각김치를 한 입 깨물어 먹고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는 남편이 어찌나 뽀글하더군요. 역류현상 때문에 음식도 피했고, 김치를 먹으면 목이 따가워 먹질 못했는데 이날은 그게 당긴다며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도착할 때부터 남편은 “이 병원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다”며

좋아했습니다. 마지막 삶을 보내는 호스피스 병동이다 보니 의료진들이 정말
진심으로 환자나 가족을 대해줘 남편의 마음이 편했나 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기대수명이 6개월 이하인 말기암
환자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 거의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
었습니다. 12개 병상밖에 안 되지만 입원해서 하룻밤 보내고 임종하는 환자도
더러 있었고, 거의 매일 환자들이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길어야 석 달이었습
니다.

그래서인지 병동에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각종 행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생일이 긴 가족들에게는 생일파티를 해주었고, 생활이 어려운 가족들에게는
치료비도 보태주었습니다. 12월 24일에는 성탄파티도 해주었습니다. 마침 그
날이 우리 며느리 생일이었는데, 며느리의 선물까지 마련해주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께서는 환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힘든
가운데서도 긍정
적인 마음으로 잘
지내는 남편이 너
무도 감사했습니
다. 훗날 자신이 떠
나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말도 하면
서 마지막 준비를
너무도 잘 해주었
습니다.

그렇게 잘 버티
던 남편의 건강이

올해 2월 들어서부터 부쩍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되면
서 갑자기 한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그냥 위암인 상태로만 생각했는데, 실명까
지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병 진행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한쪽 눈마저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애들을 오라고 불렀습니다. 2월 15일이 손녀 백일이었는데, 남
편의 눈이 조금이라도 보일 때 손녀에게 백일반지를 끼워주게 하기 위해서였
습니다. 남편은 손녀를 그렇게 예뻐하면서도 혹시라도 아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손녀를 병원에 못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설날에 아기를 보여주려고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 문 앞에 왔다가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백일 3일 전날인 2월 12일 남편은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그렇게 예뻐하는
손녀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아기를 끌어안고, “이제 소원을 풀었다”며 눈물
을 흘렸습니다.

2월 23일 새벽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온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그만 좀 자기를 놓아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남편을 붙잡고 있는 게
본인에게겐 너무나 큰 고통이라며 떠나기 보름 전에는 의사선생님께 “그만 좀 죽
여 달라”는 말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렸습니다.

달나라도 오기는 세상에 왜 암환자들은 완치가 안 되는 것일까요. 지금 이
밤 이 시간에도 호스피스 병동에선 수많은 말기암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
다. 언제나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없어질까요.

저는 나이 53세에 혼자가 됐지만 호스피스 병동에 저보다 더 젊은 환자들도
많습니다. 40대 환자들, 심지어 28세 된 아가씨도 하늘나라로 떠나는 걸 봤습니
다. 수많은 사연들을 지닌 채 가족들을 남기고 떠나야 하는 환자들... 그 환자
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자 애쓰는 호스피스 의료진들과 자원봉
사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결혼식 하객 도우미

● 글_황종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하객 도우미 회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내게 아르바이트가 생긴 것이다. 2년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번 했으니, 참 오랜만이다. 연락이 하도 없기에 내 이름은 삭제되었는가 싶었더니, 불사조처럼 살아났는가 보다.

결혼식 하객 도우미다. 이젠 내가 아주 잘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잇을 만하면 되풀이 되는 일이다. 친구의 아들딸이 결혼하네, 친척 조카 아들딸이 시집 장가가네 하면서 수시로 하객 노릇 열심히 했다.

장소는 서울 강남, 토요일 1시 반에 집합인데 친구도 몇 명 같이 오면 더 좋단다.

말을 전하는 결혼 도우미 직원에게 물었다.

“일당이 얼마요?”

1만 5,000원에, 점심으로 7만 원짜리를 대접한다. 역할은 신랑 아버지의 친구. 강남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예식장이니, 식장 비용이 만만치 않을 터였다.

썩통 하객 한 명당 도우미 회사에 내는 돈하며 오는 사람 밥 먹이자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 들어갈 것이다. 몇십 명을 동원하면 몇백만 원이 뜬금없이 사라질 판이건만 신랑 아버지는 얼마나 모임이나 친구가 없이 살았으면 이렇게 하객을 동원할 정도로 딱하단 말인가.

나는 나와 함께 갈 썩통 하객을 모으려고 전화를 걸었다.

“밥만 먹여줘도가겠지만 그날은 다른 데에서 모임이 있어 유감천만아네.”



다른 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황형을 오랜만에 만나는데, 거 잘 됐소.”

그 전날 날씨가 덥더니, 결혼 당일은 비가 와 날씨가 구질구질했다. 친구 아들딸 결혼식에 입고 나가던 쥐색 양복 정장애다가 청색과 흰색의 사진 무늬 넥타이를 하고 나섰다.

약속 장소는 역삼역 지하철 안이다. 60세가 넘어 보이는 영감들이 양복을 빼 입고 끼리끼리 모여 있었다. 척 봐도 썩통 하객인 걸 알겠다.

하객 도우미 회사 직원은 예식장 한구석에 사람을 모으고는 인원 점검을 했다.

그리고 돈 봉투 2개씩을 줬다. 한 사람 앞에 왜 두 사람 분의 축의금 봉투를 주는지. 거기다가 방명록에 추가로 두 사람 이름을 더 적으라고 했다.

“뭘 뻘에 더 적는답니까?”

나는 당연히 궁급했다.

“방명록에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객회사 직원의 말은 들을수록 아리송했다. 이젠 좀 수상했다. 오지도 않은 썩통 숫자를 늘려서 신랑 아버지를 속여 돈을 뜯어내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식이 끝나고 나서자 하객 도우미 직원은 “오늘 동원 인력이 100명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작 결혼식장에 미리 모였던 인원은 30여 명밖에 안 되었으니, 나머지 70명

은 어디 다른 데 숨겨놓았던 말인가. 직원의 말이 이상하고 야릇했다. 같은 필체로 글씨를 쓰면 티가 날까봐 하는 수작인가.

2시에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식은 2시 반에 시작됐다. 신랑은 잘 낫고 색시는 고왔다. 신랑은 천하가 알아주는 대학을 나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직장에 다니고, 신부는 그래도 중간쯤 하는 대학을 나와 제법 알아주는 직장에 다닌다고 했다. 신랑 아버지는 풍채도 좋고, 돈도 있어 보였다. 부인도 참했다. 친구 많고 이웃도 많아 보이는 부부였다. 그런데 하객당 10만 원을 들어 100명에 1,000만 원을 쓰면서 대접인지 적선인지로 신부측에게 과시할 일이 무엇인가.

먼저번에 갔던 결혼식은 신부측 친척 노릇이었다. 강원도에서 서울에 와 홀로 일어난 신부예겐 친척들이 서울까지 올 힘이 없었나보다. 우리 쪽통 도우미 10여 명은 가족사진까지 찍었다. 그때는 먹을거리가 부족하다며 쪽통들은 밥도 못 먹고 2만 원을 받고 할 일만 했다. 결혼식 가족사진을, 그 시간 이후로 단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는 친척들 사진을 보면서 그 젊은 부부는 그 사진을 가리키면서 만날 수 없는 삼촌과 육촌 언니라고 했겠지?

그때 생각을 하면 그런대로 쪽통 하객은 필요할 수 있다고 억지라도 쓸 수는 있겠다. 결혼식은 축하를 받는 자리다. 마땅히 축하를 하는 하객들만 모여야 한다. 남보란 듯이 사람을 모으려면 차라리 서울광장에서 모인 사람에게 국수 한 사발을 먹여주는 게 낫다. 물론 사람 사는 처지가 저마다 다르다.

내게 4번이나 다른 이름을 쓰게 시키던 하객회사 직원은 1만 5,000원을 내게 줬다. 나머지 세 명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소위 ‘뽕뽕’을 치는 게 싫었다. 100명을 동원하려던 신랑 아버지가 서른 몇 명 정도밖에 안 온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결혼식은 사람이 오는 대로 조출하게 치르면 그뿐이다. 진정으로 행복을 축하하는 사람들만 청해야 한다. 이렇게 타인들을 불러 모아 부질없는 허세에는 헛돈이 나가도 행복하다면 무슨 말을 하리. ♥



아내의 전화번호는 1번

● 글_김기환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제가 사는 곳은 출입구에 보안장치가 없는 10년 넘는 소형 아파트단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집 뒤쪽 베란다에는 요즘 한창 택지개발중인 허허벌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문단속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층까지 낮다보니 행여 저와 집사람이 출근하고 아이들만 있을 때, 도둑이라도 들까봐 밖에 나가 있어도 마음은 항상 뒤쪽 베란다 창문에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제 맘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0여 가구 되는 단지 내에서 몇 주 사이에 서른 집 가까이가 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창문을 타고 넘는 것이 아니라 속칭 ‘빠루’라는 노루발뿔뿔이로 대문 자체를 부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침저녁으로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이는 즉시 신고하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아파트 생활에 수상하게 보자면 내 식구 말고는 다 수상한 사람이기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신고하면 경비 분들이나 경찰관 아저씨들 방귀 찢 틈도 없을 겁니다.

이럴 때는 안내방송에서처럼 그저 첫째도 문단속, 둘째도 문단속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들어도 집어 갈 패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라곤 보리쌀 서 되하고도 못 바꿀 10년 된 가전제품들이 전불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갖고 고이

나가주면 좋겠지만 힘없는 애들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안내방송에서처럼 문 단속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요.

이런 마음은 집사람도 같은지 이사 오고 2년이 돼서도 안 바꾸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노루발못뽕이로 뜯고 들어온다고 쳐도 앞집에 사람이 있는 한 큰소리 나는 것보다는 우선은 문을 열려고 노력할 것 같아 그거라도 해보자고 했습니다.

바뀔 비밀번호는 아이들 기억하기 좋은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헛갈려 당황하지 않게,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집 앞에서 동동거리며 울고 있지 않게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출근을 했지요.

그날 평소와 다름없이 일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와 도어락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도시락가방이며 차 열쇠며 다 내려놓고 아이들을 찾으러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잘 가는 놀이터도 가보고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스크림을 반값도 아닌 60% 세일을 하는 마트에도 가봤지만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이럴 때 휴대전화라도 하나 애들 목에 걸어둘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집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애들이 갈 만한 곳을 물어보려고 휴대전화를 찾는데, 집에서 나오면서 제 휴대전화 역시 놓고 나왔습니다.

다시 집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정확히 일곱 자리를 눌렀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제 커다란 손가락이 또 버튼을 잘못 건드렸겠거니 싶어 다시 한 번 번호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띠띠띠띠’ 하는 경고음뿐이었습니다.

“왜 안 되지?”

그제야 비밀번호 바꾸겠다는 집사람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전 도어락 두 경을 내렸다 다시 올리고는 번호를 꾸욱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번호를 꾸욱 눌렀습니다. 그러나 집사람이 바꾸겠다고 했던

그 번호는 번번이 제 손길을 거부하며,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새 도둑이 들어 비밀번호까지 바꾸고는 미누라 몰래 신발 밑창에 숨겨둔 비상금까지 찾아내는 게 아닌가, 혹시 아이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에서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이사 올 때 잠깐 얼굴 스치고 못 보았던 앞집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주인인데, 열쇠를 집에 놓고 나와서요.”

표정으로 보아서는 금방 경비실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전 집에 있지도 않은 애들 이름까지 불러대며 제가 정말 이 집의 주인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앞집 사람들의 눈초리는 의심으로 물들어갔고, 결국 5분 뒤 경비아저씨께서 쫓아오셨더군요.

아저씨는 제게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신분증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신분증이 있다”고 했더니, 경비아저씨는 “차가 있냐? 주차증을 발급받았을 테니 그럼 차번호를 말해보라”고 하는데, 그게 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전 답답하고 억울해 제 차가 있는 곳까지 아저씨를 모시고 가서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는 기울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더니, 내 집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수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고, 배는 고프고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나 찻잔하고, 담배까지 집안에 두고 나왔으니 마음을 달랠 그 어떤 것도 제게 없었습니다.

그때 저만치서 집사람과 아이들이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제 부름에 집사람은 약간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왜 나와 있어요?”
 “애들이 안 보여서 찾으러 나왔다가 키를 두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지.”
 “애들 문제집 다 풀었다고 해서 사러 갔다 왔지. 그런데 키가 없으면 비밀번호 누르면 되잖아.”

“비밀번호 눌렀는데, 안 열리던데? 도대체 몇 번으로 해놓은 거야?”
 “아침에 말했잖아. 내 전화번호라고. 당신 혹시 내 전화번호 모르는 거 아니야?”
 “모르긴 내가 왜 모르냐?”
 “몇 번인데? 어떤 번호 눌렀는데?”
 “당신은 참. 남편을 바보로 알아? 1번.”
 “뭐? 1번? 그리고?”
 “1버~언.”

“내가 1번이야? 진짜로 1번 하나 눌렀어?”
 “응. 내 전화기에는 사모님이 1번이거든. 근데 아무리 눌러도 안 되던데?”
 저, 그날 욕 엄청 먹었습니다. 첫째는 집사람 전화번호도 못 외워서이고, 둘째는 전화번호를 모르면 열쇠라도 들고 다녀야지 아무 준비성이 없어서이고, 셋째는 애들이 없으면 집에서 집사람한테 먼저 전화하지 대책도 없이 밖에 나와 동네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비록 전화번호는 못 외웠지만 그래도 제 아이들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게 있어 집사람은 언제나 1번이라는 겁니다.

집사람이 어제 제게 이런 협박을 하더군요. 밋게 보이면 처갓집 전화번호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겠다고요. 그나저나 가난한 동네 마구 털어가는 도둑들이 하루빨리 잡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도둑도 무섭지만 도둑이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동 현관 출입구까지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도어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제겐 더 무섭거든요.

대한민국 남성분들, 혹시 사모님 전화번호 외우고 계십니까? ♥



그때 그 사람

● 글_신귀선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점 심을 준비해놓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식사주 문은 이른 시간인데?’ 하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신가네입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식당입니다.”

나는 반복해서 식당이란 것을 밝혔습니다. 낮은 음성으로 그 남자는 “준이 엄마요?” 하고 물었습니다. 생각나는 음성이 아니라서 재차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저쪽에서 남자는 “아, 이 사람. 내 목소리도 모르냐” 하는 짧은 대답에 몇쩍은 비웃음까지 느껴지기에, 나는 가벼운 짜증이 났습니다.

“누구신데요. 나를 아세요?”

좀 신경질적으로 묻는 내 물음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야. 준이 아빠야.”

그 말에 수화기를 든 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이 아빠라니? 그 철면피한 인간이라니?’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20년 전에 헤어진 남편이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많은 사연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빚지고... 온갖 일들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괴로워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찬정도 없는 나로서는 그가 만들어

놓은 시간들은 지옥이었습니니다. 벼랑 끝에 서서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나를 잡아준 것은 어린 아들의 걱정 없는 얼굴이었습니니다.

무능한 엄마를 믿고 있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에 나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하고 엄마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니다. 그렇게 살아온 20년이었습니니다. 그런데 20년을 넘어서 그 남자가 내 아이의 아버지라고 감히 말했습니니다. 그것도 나는 당황해 떨고 있는데, 그는 출장 갔다가 오늘 도착한 남편 같은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니다. 내가 떠는 게 그곳까지 느껴졌는지 그가 날보고 진정하라고 까지 말했습니니다.

“왜 전화했느냐?”고 겨우 물었습니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하고 뻔했습니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건강도 좋지 않고, 하나뿐인 아이가 보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니다. 어이없는 그의 말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니다. 나의 온몸은 독사에 물린 듯 마비되고, 정신까지 몽롱해졌습니니다.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어서 점심으로 준비해놓은 것을 냉장고에 주섬주섬 집어넣고 집으로 가서 누웠습니니다. 공장 일과 식당 설거지 같은 잡일들을 하면서 아이를 대학 공부까지 시켰습니니다. 그는 재혼해 자가용 타고 다닐 때도 아이에게 연필 한 자루, 운동화 한 켤레 사준 일이 없었습니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 아이의 아버지라니요. 앞에 있다면 오물을 머리꼭지에도 들이붓고 싶었습니니다.

그렇게 온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가게에 나왔는데, 어제 그 시간쯤 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니다. 나는 지난 밤 증병을 앓고 나니,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고 여유가 생겼습니니다. 침착하고 정돈된 음성으로 그에게 “왜 전화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니다.

그는 어제처럼 대답했습니니다. 건강이 좋지 않고, 세상에 하나뿐인 혈육이 그렇고, 또한 나한테 잘못된 것이 미안하고 후회스럽다고 했습니니다. 그는 정말

로 말을 잘합니다.

이혼하기 전에도 속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언제나 또 속았습니니다. ‘그래, 사람은 몸이 아프면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야. 더구나 이 세상에 하나뿐인 자식인데 길가다가 마주쳐도 몰라볼 정도이니 어떻게 보고 싶지 않을까’ 하는 주제님은 착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에게 “아빠가 만나고 싶어한다”고 말을 하니까, 아이는 한마디로 싫다고 했습니니다. 아빠가 미워서도 아니고, 아빠의 존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아이의 말은 미움보다 더 무서운 반응이었습니니다. 아이의 표정에는 정말로 미움조차 없었습니니다.

그 후에도 그 사람은 전화를 계속했고, 나는 아이를 설득해 20년 만에 만나게 했습니니다. 나는 지금에 와서 아이를 빼앗길 우려도 없고, 좋은 아빠는 아니라도 아이의 가슴에 아빠라는 존재라도 남겨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만남을 주선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니다. 그 후에는 그 사람 이야기는 우리의 대화 속에서 영영 없어졌습니니다.

그 사람이 20여 년 만에 나를 찾은 것은 아이를 대학원까지 보내니까 나의 형편이 좋을 거라는 계산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려우니까 아이를 이용해 도움을 받으려는 정말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니다. 그런 치사한 생각을 해 하나뿐인 자식에게서 아버지의 추억마저 앗아버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를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니다. 그냥 우리는 그를 잊었습니니다. 어느 할일 없는 날, 나는 그가 만약 길에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받는다면 내가 어쩔지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서 웃어봅니다. 착해서가 아니라도 주제넘게 응급차라도 불러줄지도, 무덤 위에 흰 국화꽃을 던져줄지도 모릅니다. ♥



돋보기와 노안

● 글_조정희 | 광주시 북구 매곡동

몇 년 전부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해 안과에 갔더니 ‘노안’이라고 했다. 씩씩한 그 처방에 따라 안경을 썼지만 눈은 자꾸 침침해졌다. 신문이나 책을 볼 때는 물론이고 휴대전화로 오는 문자라도 보려면 사물을 조준하듯이 멀리 가져갔다가 가까이 하기도 하고, 어두운 쪽을 향했다가 밝은 쪽을 향하기도 하고서야 내용을 알 수가 있다.

내 나이 이제 선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고생은 뒤로 하고라도 우리나라처럼 복잡 다변한 입시제도에 그래도 내로라하는 대학에 두 아이를 순순히 보낸 훈장이려니 하고 마음을 달래려던 참이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에 다녀온 남편이 사 올 것이 어지간히도 없었던지 돋보기 한 개를 선물이라며 사 가지고 왔다. 그동안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갈 때마다 비치되어 있는 돋보기에 손이 가다가도 ‘아직 나하고는 상관없는 물건이려니’ 하고 애써 외면하던 참이라 나는 남편의 선물이 몹시 마음에 거슬렸다.

그런 마음을 알아차린 남편은 “내가 쓰려고 사 왔다”며 둘러댔지만 난 아주 가끔 손톱이나 발톱을 깎을 때, 혹은 코털 깎을 때 쓰고는 거의 쓰지 않았다. 이젠 눈이 시리고 아프기까지 해서 병원에 가보지만 별 이상이 없다고 했다.

엊그제는 신용카드회사에서 변경된 약관이 왔는데, 안경을 쓰고 양지바른 창문 쪽으로 가서 아무리 눈을 치켜뜨고 봐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거실 탁자 위에서 심심해하는 듯한 돋보기를 꺼내 써보았다. 순간! 왕팡울처럼 커진

듯한 눈이 어떤 칙칙한 막을 벗기며 밝은 세상이 되었다.

문제의 글자들을 멀리 가져갔다가 가까이 가져올 필요도 없었고, 눈을 치켜떴다가 가느스름하게 뜯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그런 환희도 잠시, 울컥한 서글픔이 뼈 마디마디 고여 들었다.

금방 밝은 세상을 경험한 눈은 다시 뿌연 안개로 뒤덮였고, 온천수처럼 솟구치는 지난 세월의 뜨거운 설움들이 한꺼번에 복받쳤다. 하늘도 앞산도 쳐다보지 않고 묵묵히 길을 걷다 보니 해는 서산에 누엿거렸고, 나도 모르는 어떤 낯선 길에 서서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어디로 가려고 그렇게도 정신없이 걸어 왔는지도 모를 그런 아득함과 허무함 때문이었다.

내가 벌써 돋보기를 쓰게 되기까지는 남편도 한 몫 단단히 했을 게 분명한데, 자기는 원래 눈이 좋아서 멀찍한 양밤길 운전을 하면서도 “저 멀리 공중에 부엉이처럼 매달려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도 보인다”며 속도를 늦추고, “먼 산꼭대기에 있는 팔각정 기둥 색깔 알아맞히기를 하자”며 우쭐대던 모습이 떠올라 울화가 치밀었다.

한참을 그렇게 훌쩍거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다. 통통 부은 얼굴을 찬물로 진정시키며 씻어내고 거울 앞에 앉았다. 기를 쏙 뺀 탓에 눈이 더 침침해졌다.

‘글쎄, 무슨 마음이었을까?’

나는 한번 썼다가 그 곤욕을 치른 돋보기를 다시 써보았다. 그러나 눈 밝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었다. 엠보싱 화장지처럼 커진 땀구멍,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에 처진 피부, 기미에 주근깨까지...

그것들은 마치 현미경으로 보는 좀벌레의 포자들처럼 굴실굴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난 매일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면서 또 그 화장을 지우면서 도대체 뭘 보았을까? 중지와 약지로 정성스럽게 문지르고, 톱톡 두드리고, 눈썹을 그리고,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연지곤지를 찍으면서 도대체 어디에 그림을 그렸기에 그



렇게도 몰랐을까? 온갖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노화를 3단계로 막아준다면 그 좋은 것들은 무엇이 다 먹어치웠을까?

돋보기를 벗어던지고 난 또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먹고 살 일도 걱정인데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호들갑은 무슨 호들갑이람? 내가 언제부터 얼굴에 신경 쓰고 살았다고. 아이고, 그래! 아직 살 만한가 보다.’

그러다가 며칠 전, 딸아이가 사다준 책을 집어 들었다.

‘누구에게 엄마를 부탁한다는 걸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펼쳐보지만, 이내 욕심이있음을 알고 제자리에 꽂았다. 눈에 덩달아 마음까지 흐려져 영 집중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긴 나 빠지고 흐려진 것이 어디 눈뿐이겠는가? 우울한 기분은 좀처럼 가지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난 다시는 돋보기를 쓰고 싶지 않았다. 그 맛있는, 모양새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 용한 점쟁이처럼 내 삶의 역사는 물론이고 감추고 싶은 속내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싫기 때문이다.

흐르는 세월 따라 조금 희미하면 희미한 대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자연의 순리 아니겠는가?

이른 저녁을 먹고 저수지 쪽으로 난 산책길을 따라가 보았다. 강물에 낚싯대를 드리운 강태공들의 모습은 여유롭다기보다 초조하고 심심해 보였다.

‘한창 바빠야 할 중년의 저 남정네들은 무슨 까닭으로 어제도 오늘도 혼자 저러고들 있을까? 저들은 정말 고기를 잡기 위해 저러고 있는 것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내 발걸음을 한없이 느리게 했다. 저수지 뚝 주변에는 여러 가지 들꽃들이 많이도 피어 있었다. 개망초와 달맞이꽃도 있었고, 누가 심어놓았는지 아니면 지난해 가을에 어디서 날아들었다가 저 홀로 피어난 것인지 모를 메밀꽃도 군데군데 피어 있었고, 때 이른 들국화와 코스모스, 해바라기까지 외따로 한두 송이 피어 있었다.

그 주변 공원의 벤치 곳곳에는 운동을 하다가 쉬러 왔거나 더위와 모기를 피해 나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고, 젊은이들은 인생을 논하고 사랑을 노래하며 자못 심각하게 앉아 있기도 했다. 그런 그들 앞을 지날 때면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는 요즈음 젊은이들의 사랑방식이 민망해 눈을 돌리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말은 꺼내보지도 못하고 수줍은 미소만 가슴에 새긴 내 첫사랑이 생각나기도 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을까? 저들에게도 나처럼 중년이 오겠지? 그때 저들도 오늘의 내 모습처럼 생겼을까?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이 독을 걸어가고 중년을 살아갈까? 갇힌 목걸이를 걸어주고 시계꽃을 팔목에 어설픈게 감아주며 “나중에 나는 아빠 되고 너는 엄마 되자” 던 소꿉친구들, 그들은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중년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 상념은 끝이 없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부식가게들 문 닫기 전에 얼른 가서 내일 아침 된장찌개라도 끓일 애호박과 두부 한 모라도 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순간 또 발걸음을 재촉하는 나. 나는 그렇게 오늘도 자꾸만 침침해져가는 눈과 마음으로 중년의 고개를 힘겹게 넘어가고 있다. ♥



엄마 같은 올케언니

● 글_양점순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고모, 나 밑에 와 있는데, 잠깐 내려와 봐요.”
“아니 뭘 이렇게 가져왔어요.”

“고모, 이건 생김치고, 이건 찌개 해먹으라고 가져온 우리 안 먹는 신 김치야. 이젠 시골 우리 작은 오빠 집에서 가져온 양파고, 이젠 우리 언니 집에서 가져온 묵은 김치야.”

47세인 내게 55세인 올케언니가 20년 넘도록 해오고 있는 일이다.

올케언니가 담은 반찬이며 심지어 친정오빠나 언니 집에서 얻어오는 김치며 채소 등을 많이 먹은 것처럼 가져와 시누이인 나에게 늘 나르셨다

“언니, 고마워요. 이제 내가 언니에게 가져다줘야 하는데, 계속 얻어다 먹어서 어떻게 해요. 언니 쉼 날 넘으면 내가 거꾸로 다 갚으려고 했는데, 아직도 얻어먹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괜찮아, 고모, 형편 좋아지면 그때 받을게.”

내가 중3일 때, 우리 집 가정 형편은 남들이 혀를 찰 정도로 힘들었다. 3년 넘도록 암투병 중이던 엄마는 돌아가시고, 군대 간 큰오빠, 고3인 둘째오빠, 중3인 나, 초등학교 6학년인 남동생까지 엄마 병수발에 지친 아버지가 작은 농사로 겨우 우리들을 책임지고 계셨다.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에 뭐 하러 아이들 학교를 보내냐?”는 친구 분들의 비웃음에도 어떻게든 우리들이 고등학교까지라도 마치게 하려고 애쓰셨다.



이듬해 다행히 군에서 제대한 큰오빠가 회사에 복귀하고, 작은오빠도 바로 대기업에 취직되고, 나 역시 그 당시 공부 좀 해야 갈 수 있는 여상에 들어가게 되자 점점 집안 형편이 피기 시작했다. 엄마가 늘 말씀하시며 꿈꿔왔던 그런 상황이 된 거였다.

사람이 고생하다 살 만하면 돌아가신다던데 이런 모습을 보기 전에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셨다.

남들은 내가 3남1녀 중 외딸이라면 남들은 “아이고, 귀한 양녀딸이네. 귀염받고 자랐겠네” 한다. 난 속으로 ‘모르시는 말씀. 정말 우리 집에 나 없었으면 큰 일났을 뻔했어요. 꼭 있어야 했을 딸인 걸요. 엄마가 암투병중일 때부터 집안살림은 내 차지였으니까요’ 한다.

한참 공부에만 전념해야 하고, 놀고도 싶은 그런 나이인데 주말이면 밀린 빨래해야지, 김치며 반찬 만들어야지, 사춘기 시절을 어른처럼 지냈으니, 나야말로 친구들에게는 언니 같은 존재였다.

다행히 내가 고1 때 큰오빠가 우리 집안의 구세주인 올케언니와 결혼을 해서

내 고생은 끝이 났다. 그동안 집안 살림을 잘하던 내가 올케언니 시집오던 날부터 손 하나 까닥하지 않았다.

올케언니가 시동생들 학비라도 벌여보려고 몰래 직장생활을 했는데, 집안 살림은 안 하고 돌아다닌다며 나는 눈을 흘기며 문을 열어주곤 했다. 그동안 고생했던 올챙이 적 생각은 안 하고 철없는 못된 시누이 노릇을 톡톡히 했다. 나와 동생 등록금 내느라 늘 수입이 넉넉지 않았는데도 올케언니는 불평불만 없이 우리 집안을 이끌어갔다.

홀로 되신 아버지도 그동안 초라해진 모습이었는데, 언니 덕분에 살도 찌고 편안하고 깔끔한 외모로 바뀌었다. 언니 또한 친정아버지께서 어릴 때 돌아가셔서인지 우리 아버지를 딸인 나보다 더 좋아했다.

여고 때 생활관 들어가서 1주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엄마를 초대했다. 엄마가 없는 내게는 올케언니가 대신 왔다. 프로그램 마지막에 엄마들을 앞에 모셔 놓고 아버이 노래를 부르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언니 또한 내가 안쓰러워서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고 했다.

그때부터 올케언니는 나에게 엄마였다. 내 나이 열일곱 살 때 시집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올케언니는 나에게 엄마 노릇을 했다. 올케언니는 엄마 없이 시집가는 날 보고 안쓰럽다며 눈물을 보이는데, 난 그때도 철없이 시집간다고 좋아서 웃고 다녔다. 올케언니는 우리 큰애 낳기 10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큰일 다 치르고도 집안 허전하다며 나 큰애 낳았을 때 한 달간 회복간호를 다 해주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언니에게 전화해 대뜸 수화기에 대고 “언니!” 하고 울기부터 하면 “고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며 놀란 목소리를 묻곤 했다. 그렇게 친정엄마처럼 시댁 흥, 남편 흥 다 보는 나를 다독거리며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렇게 늘 나에게 베풀기만 했던 올케언니. 늘 날아다닐 듯 여기저기 힘든 일

다 하고 어려서 공부를 제대로 못 했다며 방송통신대도 장학생으로 마치는 등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던 올케언니가 갱년기 증상으로 무척 힘들어한다. 누구에게 신세지는 걸 싫어해 혼자 이겨내겠다고 집안에서 혼자 있곤 하는 모양이다. 그러다 우울증이 올라 염려가 돼 우리 가게라와 와서 놀다가라고 했다.

“고모에게 신세지기 싫어. 그냥 이겨낼 거야.”

“뭐가 신세야. 그냥 와. 언니, 이제 그동안 베풀었던 것 보답 받을 차례니까 그냥 받아.”

그동안 날 키우고 가르쳐 시집보내 반찬 모두 해다줬으니 이제 내 차례다. 그런데도 올케언니는 내 형편 어렵다며 나중에 받겠다고만 한다.

얼마 전에도 내가 침대가 오래 돼서 불편하다니까 나 시집보낼 때 제대로 못 해줬다며 기어이 침대와 이불 한 세트를 사주었다.

올케언니와는 엄마보다 더 많은 세월을 보낸 사이다. 오빠가 친구들을 좋아해 자주 저녁에 나가고, 아이들이 다 커서 공부한다고 집에 없어 혼자 보내는 언니가 안쓰럽다.

그래서 가끔 오빠에게 말한다.

“언니에게 좀 잘해요. 오빠만 혼자 낚시 다니면서 언니 혼자 외롭게 놔두지 말고 손님초대도 조금만 하고.”

그러면 언니는 피식 웃으며 말한다.

“고모는 오빠보다 나를 더 좋아해? 어떻게 내 편을 더 들어줘.”

“그럼, 언니편이지. 오빠는 나빠. 언니 외롭게 하니까.”

“그래도 오빠에게 뭐라고 하지 마. 다 스트레스 쌓여서 그러니까.”

늘 소년처럼 순수함을 잃지 않고 생일날 커다란 선물보다 꽃 한 송이를 더 좋아하는 언니가 빨리 갱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

‘언니! 그동안 우리 집에 시집오셔서 베풀기만 했으니 이제 건강 되찾으셔서 시동생들에게 보답받으세요.’ ♥



살아 있어 고마운 것들

● 글_박행복 | 대구시 북구 서변동

“따릉, 따릉, 따릉.”

전화벨 소리가 다른 집보다 유난히 오래 울립니다. 혹은 이제는 아예 한 두 번 울리고 끊고 다시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숨이 헉헉!

“미안해! 우리 집이 89평이나 돼서 그래.”

“그 집은 이 경기도에도 대단해. 그 평수가 줄어들지가 않네.”

“미안해! 좀 더 노력해볼게. 아마도 지난해보다는 좀 빨랐지? 그 대신 기다리는 동안 음악 한 곡 감상하라고 내가 컬러링 신청했잖아. 이거 팬 관리야!”

이렇게 전화 한 통화가 오면 인사가 길어지는 이유는요, 제가 5년 전 암으로 한쪽 골반을 절제한 후, 거의 누워 지내는 시간이 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전 그래도 살아 있어 고마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야 알게 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건강할 때는 그토록 내려놓지 못한 짐들이 많았던지요, 그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창문으로만 보는 세상과 전화로 가끔씩 듣는 그리는 목소리가 다지만 이렇게 농담과 하하 웃음으로 통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한숨 쉬면 듣는 이는 얼마나 힘들까? 내가 외롭다고 하소연하면 듣는 이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래서 난 간사한 마음으로 늘 즐거운 척합



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89평이라고 자랑하는 나. 어쩌면 25평짜리 아파트가 내 움직임에 비해서는 너무 큰 공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은 늘 89평입니다.

난 그 집에 간혀 사는 세일지라도 너무 좋습니다. 좋아하는 모차르트가 있고, 그토록 친하게 지내는 책들이 더 밀착해 있고, 아름다운 계절의 순환을 창문을 열면 느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 살아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간혹 도깨비처럼 밀려오는 ‘자식에게 짐’이라는 이 생각을 어쩌하면 좋을까요? ♥



답은 어디에

● 클_이현주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얼마 전, 딸이 기말고사를 보았습니다. 시험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딸아이가 의기양양하게 “엄마, 나 이번엔 진짜로 다 맞았을 것 같아” 하며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그 모습이 진짜 어찌나 당당해 보이던지요. 꼭 시험지에 백 점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온 아이처럼 말하기에 “그래, 아주 잘했다. 그런데 시험지 받아 봐야 아는 거지? 아무튼 시험 보느라고 생 많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주특기가 설레발이거든요. 뭐든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성질이 급하고 입이 썩편이라 늘 일을 그르치는 아이랍니다.

지난번 중간고사 때도 제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습니다.

“제발 시험 볼 때 문제를 끝까지 읽어. 바르지 않은 것은? 바른 것은? 답을 두 개 고르시오. 하나 고르시오. 넌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서 다 틀린단 말이야. 너는 문제만 똑바로 읽으면 잘 볼 수 있어 알았지?”

딸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문제를 또 읽고 또 읽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중간고사에서도 예상했던 문제들을 틀렸더군요. 너무 어이없는 문제를 틀려 제가 “넌 도대체 문제를 읽은 거니 안 읽은 거니?” 했더니, 돌아오는 답이 가관이더군요.

“그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해서 시험지 다 풀

고 조금 이상한 문제들은 읽고 또 읽고 해서 고친 건데, 고쳤던 답이 다 틀렸단 말이에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괜히 시간 있으면 문제 읽어 보라고 해서 틀린 거란 말이에요” 하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기말고사를 보던 날, 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발, 차근차근 풀어. 알았지? 아는 문제라고 답부터 쓰지 말고 문제를 끝까지 읽고, 헷갈리는 문제는 나중에 풀고” 하고 말이지요. 그랬더니 딸아이는 이번에도 자신 있게 “네. 엄마, 걱정 말라니깐요” 하고 현관문을 닫고 당당히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호탕하게 전부 백 점 맞을 것 같다고 큰소리를 저에게 해 대더군요.

그리고 며칠 전, 드디어 시험지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편지 보낼 사람을 정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편지지를 사와야 한다고 답을 적었다더군요.

제가 그 이유를 묻자 딸이 대답했지요.

“엄마, 당연한 거 아냐? 편지를 쓰려면 편지지가 있어야 하잖아. 나는 편지지를 사다 놓고 편지 쓸 사람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쓴 건데. 그러니깐 편지 쓸 때는 편지지부터 사다 봐야지.”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 니 말이 맞다. 편지지 사 놓고 편지를 쓰면 되지 이런 걸 뭐 순서를 정해 봐서 헷갈리게 했냐?” 라고 하자 딸아이는 신이 났는지 “엄마, 내 말이 맞는 거지?” 하며 이번엔 답이 진짜 이상하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 외에도 저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나 싶을 정도로 딸아이가 이상하게 틀려 온 문제들은 참 많았습니다.

틀린 문제들에 대해 딸아이를 다그치고 추궁할 때마다 딸아이는 희한한 자신의 이론을 주장해 저를 당혹케 만들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딸아이가 말하

는 이론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 이걸 왜 틀렸어?” 하고 물으면 그때마다 딸아이는 딸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이유를 대가면서 설명하는데,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딸아이가 저에게 갑자기 “근데 엄마. 엄마가 그랬잖아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정답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모르는 문제들은 아무리 읽어도 정답 비슷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엄마는 문제를 잘 읽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이 문제 보세요? 도대체 정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선생님에게 늘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배웠기에 아이에게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해 왔던 것인데, 어리고 순진한 딸아이는 진짜로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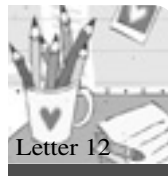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디 즈음에 정답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을 딸아이의 모습이 선합니다.

제가 “야! 엄마가 말한 문제에 정답이 있다는 건 문제를 잘 읽고 이해를 하라는 거지 진짜로 문제에 정답이 있다는 게 아니지” 하고 말했더니, “엄마는 만날 그렇게 알려주고 지금에야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 하네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시험지에 비가 오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 정도로 잔뜩 틀려 늘 제게 혼이 나지만 생각은 늘 밝고 긍정적이며, 자신 있고 당찬 우리 딸. 더 대단한 건 제게 그렇게 혼이 나면서도 절대 기죽거나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저를 더 가르치려 든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있는 정답은 잘 찾지 못해 가끔 땀기도 하고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하지만 천진난만한 아이이기에 이번 시험도 그냥 허허 웃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 때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진짜로 정답을 찾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부엌에서 먹는 밥

● 글_애청자

아들 내외가 오늘은 저녁을 먹고 온다고 해서 혼자 상을 차리고 부엌에서 내다가 먹는 일이 귀찮아 대충 상을 차려 쪼그리고 앉아 부엌 한편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입맛도 없어 국도 데우지 않고 반찬 몇 가지만 꺼내 대충 저녁을 먹다 보니 이젠 이렇게 마주하고 밥상을 함께할 수 없이 멀리 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과수원에서 쓰러지기 전까지 남편은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비탈진 과수원의 돌들을 리어커로 수십 차례 실어 나르면서 나무들을 키웠고, 우리 가족들의 꿈들을 키워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는 것도 겁내지 않으면서 조금씩 땅을 불려가는 재미를 땀과 바꾸면서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산 사람이었지요.

태풍이 모든 것을 훑고 지나갔을 때도 망연자실은 잠시 미뤄두고 결코 쓰러지지 않는 오뚝이처럼 홀홀 털고 벌떡 일어나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던 그런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쓰러졌을 때 남편의 병명은 간경화였습니다. 벌써 말기로 접어든지라 손을 쓸 수도 없을 정도였지요. 늘 고된 농사일 때문에 코피도 자주 흘렸지만 곧 멈추었기에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비싼 농사일을 핑계로 우리 두 부부는 그 혼한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번 쓰러진 뒤로 힘든 일도, 또 맛있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고, 농사일도 고스란히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식이요법을 통해 식사를 조절해야 했기에 병원에 다닌 이후로 맛있거나 기름진 음식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상태가 더 악화될 때는 복수를 뽑아주어야 했고, 강한 이노제를 써서 남편의 몸은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남편이 제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못난 사람인지라 힘든 농사일도 고될 때마다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함께 오래오래 살자며 이제 아들 결혼도 시키고 몇 년 만 더 고생하다 농사를 접고 젊어서 못 해본 여행도 다니자고 한 게 얼마 전인데 호강은커녕 이렇게 아파서 큰일을 나에게 짊어지게 한 남편이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농사일을 도맡아 하는 제가 안 돼 보였는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저를 도와주다가 무리를 했는지 밤에 꿈꾸 앓다가 간성혼수가 온 일이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고 중환자실에서 며칠 만에 깨어났을 때 남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더군요.

의사는 “간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힘든 일은 무리예요. 이렇게 무리를 하시면 또 혼수가 찾아올 수 있으니 늘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하더군요. 그 후로 전 아무리고되고 힘이 들어도 남편을 맡 근처엔 얼씬도 못 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 내심 미안했는지 언제부턴가 제가 차려놓은 점심을 편히 방에서 먹지 않고 부엌 한쪽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바쁘게 일을 하다보면 끼니때를 잘 맞추지 못해 미리 남편의 점심을 차려놓고 일을 나가곤 했지요. 그렇게 저는 점심때가 훌쩍 지나 허기진 배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보면 남편은 그때까지 저를 기다리다가 지쳐 점심을 먹는지 부엌 한켠에서 쪼그리고 밥을 먹곤 했습니다.

제가 “지금이 몇 시인데 점심을 지금 먹어요?” 하고 물으면 “당신은 굶고 일도 하는데 뭘. 혼자 먹으려니 밥맛도 없고 당신 기다리다가 지금 한 술 뜨는 거

야. 당신도 얼른 와서 앉아” 했습니다. 저는 또 그게 화가 나서 “나 기다리지 말고 먹으라고 했잖아요. 몸도 성치 않고 약도 먹어야 하면서… 그리고 왜 방에서 안 먹고 이렇게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서 먹는 건데요?”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미안하다는 듯이 “그제, 그냥 나 혼자 따뜻한 밥을 편하게 먹기가 미안해서…”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걸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남편이 먹던 차가운 국을 다시 냄비에 쏟아 데워주곤 했지만 저는 아픈 남편의 식사도 잘 챙겨주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앉아 차가운 국을 먹게 만든 미안함에 속으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남편은 제가 없는 점심을 먹을 때면 부엌 한켠에서 쪼그리고 앉아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고 나서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바로 부엌에서 식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따뜻한 밥상을 받는 일이 얼마나 목의 가시처럼 느껴졌으면 누가 보지도 않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부엌 한켠에서 밥을 먹었을까 생각하면 죄를 지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농사일이 아무리 바빠도 남편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끼니때를 챙겨줄 걸. 그랬으면 남편이 미안해하면서 나를 기다리다 식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 식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다 식은 국을 먹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메어오곤 합니다.

늦었지만 하늘에 있는 우리 남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아픈 이후로 늘 불편하게 부엌에서 혼자 식사를 하게 만들고 아픈 당신 마음 편하게 못해 준 거. 내 마음은 아픈 당신이라도 늘 내 곁에 오래만 있어준다면 하고 바랐는데, 내가 너무 못해서 당신 마음을 편하게 못 해준 거 같아요. 이제 그곳에선 마음 편하게, 또 아프지 말고 잘 지내길 바랄게요. 당신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당신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

여러 번 밥상을 차리는 일

◎그림_심경희

※ 이 만화는 김영업(경북 칠곡군 왜관읍)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올해 6학년이 된 장시문 씨는 색소폰 연주에 도전했습니다. 주차관리원으로 출근해 일하고, 4시에 퇴근하면 색소폰학원에 가서 연습합니다.



충북 청주 |
장시문 씨

꿈과 희망이 없는 건 용서 못 해요



작년 어느 날, 텔레비전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시청하다가 “와 멋지다. 나도 악기 한 가지 배워야겠다” 했더니, 피아노를 전공하고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딸이 그랬답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금관 악기는 배우는 데는 인내와 노력이 전반 악기나 다른 악기 대어섯 배는 들걸요.”

마치 학생에게 타이르는 듯한 딸의 조언을 듣고도 장시문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냐. 나는 시작할 거야. 하면 된다. 안 되면 꾸준히 노력해라. 시작도 안 하고 후회하느니, 시작하고 후회하자! 일은 저질러야 하는 거야. 고(故) 정주영 회장도 그랬어. 파괴는 건설이라고.”

장시문 씨는 곧장 시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음악학원을 알아보고, 색소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먼저 색소폰의 종류와 마우스피스와 리드에 대해서 배우고, 운지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연주 자세를 배우고, 악기를 볼 때 입이나 입술, 턱의 근육이 어떻게 되는지도 익혔습니다. 그 다음은 악보를 보는 법입니다. 각종 음표를 익히고, 옥타브를 연습하고, 6개월이 지나자 여성시대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술술 미파술 라라술 술도미 레도레...’ 하면서 〈고향의 봄〉을 불기 시작한 기념으로 보낸 겁니다.

“한 소절 한 소절 더듬더듬 악보 보라, 좌우측 운지로 옥타브 키 누르라, 정신이 없지요. 그래도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저 많이 늘었습니다. 보세요!”

장신문 씨는 전국의 여성시대 가족들에게 들려드리려는 마음으로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요,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요...’ 도 연주하고 <고향의 봄>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내년 봄이면 회갑이 됩니다. 회갑에 아내, 아들과 며느리, 사위와 딸, 손주들과 친인척을 초대해 밥 한 끼 나누면서 제가 3곡정도 연주할까 합니다. 저는 맛있게 그냥 밥만 먹지 않고, 지난날의 사진을 모아 영화 보듯이 보고, 딸은 피아노 치고, 아내는 클라리넷을 좀 하나까 가족 연주회 겸해서요, 그날을 위해 열심히 연습해야죠.”

장신문 씨는 주차관리원으로 출근해 일하고, 4시에 퇴근하면 색소폰학원에 가서 연습합니다. 주차관리하면서 라디오도 열심히 듣습니다. 중간 중간 라디오에 문자도 보냅니다. 짬짬이 역기벤치에 누워 65킬로그램짜리 역기도 들어 올립니다. 한 번에 열 번씩 10회, 하루에 백 번을 듭니다. 달력에 ‘바를 정(正)’자로 횡수를 표시하며 훈련합니다. 장신문 씨는 15년 이상 헬스를 해왔습니다.

“겨우 65킬로그램 가지고 뭘 놀라요? 120킬로그램도 들었는데...”

35년 동안 군대생활을 하고, 2006년 봄에 준위로 전역한 장신문 씨의 인생철학은 ‘과거는 용서할 수 있지만, 꿈과 희망이 없는 건 용서 못 한다’입니다.



“거 뭐, 주차관리까지 하느냐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면도 짹 하고 일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이 있긴 하지만 품위유지비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유머

가 있어요. 은퇴한 후에 사람들이 다니는 대학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입니다. 은퇴 후 1년은 하루 종일 바쁘게 다닌다고 하바드죠. 그 다음은 하와이 대학, 하루 종일 와이프 옆에 붙어 있다고 하와이 대학입니다. 다음은 동경 대학, 동네 경로당에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방콕 대학입니다. 방에 콕 박혀 있다고요. 그런 대학 다니면 안 되죠.”

장신문 씨는 인라인을 탈 때 입을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배우는 것 좋아하는 장신문 씨는 재작년 여름에는 인라인에 도

전했습니다. 무심천변을 달리는 인라인 동호회원들을 보면서 그들처럼 달리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장비를 마련하고, 인라인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동안 스케이트를 몇 켤레 떨어뜨렸습니다. 인라인 장비도 제대로 갖추자니 187만 원이 들었습니다.

“난 하나를 해도 좋은 것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인라인 장비를 사 들고 갔더니, 아내가 얼마냐고 묻더군요. 액수를 줄여 말했는데, 카드로 대금을 치러 매달 청구서가 날아오니깐 결국 아내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신문 씨는 무심천변에서 열심히 연습해 부여 부소산에서 열린 대회에 처



● “퇴근하면 연습실에 꼭 갑니다. 모임이 있어도 일단은 가요. 가서 한 30분이라도 연습하고 모임에 갑니다.”



음으로 참가했습니다. 한참 열심히 달렸는데... 문득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인라인을 타다가 기절한 겁니다. 깨어난 곳은 병원 응급실. 얼른 다리부터 움직여 보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 뒤부터는 더 주의 깊게 타서 이제는 누가 봐도 잘 탄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지금도 27킬로미터씩 달립니다.

여성시대가 찾아간 날 주차장 관리실에는 악보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펼쳐놓고 틈날 때마다 오며 가며 악보를 외웁니다.

“퇴근하면 연습실에 꼭 갑니다. 모임이 있어도 일단은 가요. 가서 한 30분이라도 연습하고 모임에 갑니다. 이왕 시작한 거 잘해야지요.

나는 대강하는 건 싫어합니다.”

색소폰을 지도해 주시는 김충환 선생님이 자세도 바로잡아 주고 박자도 맞춰주십니다.

“장 선생님은 아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배운 개월 수에 비해 음이 부드러워요. 60세 이후에 색소폰을 시작하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 ‘손승수색소폰교실’에는 한 50여 분이 공부하는데, 일흔여섯인 분도 계시요. 연령은 상관없어

요. 처음에 악기 하나만 구입하면 되고, 복식호흡을 하니까,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건강에 좋으니까, 내과 의사들도 색소폰을 부는 분이 많지요. 정서적인 건강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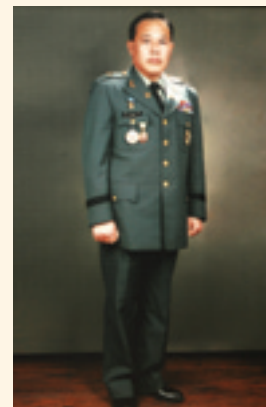
주말농장에서 20평 공간에 농사도 짓는 장시문 씨는 일기도 매일 씩니다. 군생활하는 동안 스물세 번이나 이사를 다녔고, 늘 바빠지만 즐기며 살아서 지난날은 다시 돌아보아도 즐겁고 보람 있었습니다.

“세상에 쉽게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배우면서는 입술이 두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저는 뭐든 어느 수준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군생활이 몸에 배서 그렇지요. 군생활은 제게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컴퓨터가 도입될 때도 그랬습니다. 낯선 거였지만, 군생활을 잘 하려면 배워야지 결심하고 한글부터 파워포인트, 엑셀까지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병기장교로 예편할 때까지 군 장비를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은퇴한 뒤에도 컴퓨터를 활용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영어와 중국어도 배울 거고, 다른 사람을 흥겹게 해줄 수 있는 아코디언도 배울 겁니다. <전국노래자랑>에 나가서 노래도 해볼랍니다.”

장시문 씨가 주차관리를 하는 건물 1층에서 양모침구전문점인 ‘메리퀸’을 운영하는 조복준 사장님은 “장 선생님은 늘 밝으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정말 부지런하세요. 인생선배님으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시네요.

나이는 등번호일 뿐이라고 했던가요. 장시문 씨를 보니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60년 번호를 달고 인생이라는 그라운드를 누비는 장시문 씨가 참 멋있지요? ♥



행복을
찾는 사람들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성공비결”

기업은행 둔촌동지점 고객
쥬오투스페이스 이경수 대표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간식거리
는 뭘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당
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떡볶이다.
그만큼 떡볶이는 오랫동안 우리의 입
맛을 사로잡은 먹을거리였다. 가장 부
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간편한 간식거
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길거리 음식
이란 이유로 푸대접받던 떡볶이·순
대·튀김을 체인화해 성공한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요즘 뜨고 있는 떡볶이·튀김 전문점 ‘아버지튀김 딸떡볶이(이
하 아딸)’가 그 주인공이다.



기업은행 둔촌동지점의 김태권 지행장(오른
쪽)은 철저한 사업가정신과 고객중심의 사고를 하는 이
경수 대표에게 배울 게 많다고 말했다.

아딸의 시작은 1972년에 개업한 경기도 문산의 ‘문산 튀김집’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아딸 체인본사인 쥬오투스페이스의 이경수 대표는 대학원 졸업 후, 30년간
튀김을 만들어 팔던 장인의 가업을 이어받아 지난 2000년 서울 금호동에 ‘자유
시간’이란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당시 장인어른께서 호텔 주방장처럼 하얀 가운에 하얀 모자를 쓰고 튀김을 만
드셨고, 아내는 스튜어디스와 같은 유니폼에 오색 머플러와 모자를 착용하고 떡볶
이를 만들었어요. 이런 옷차림에 호기심을 느꼈는지 사람들이 장인어른과 제 아내
가 뭐하셨던 분이나고 종종 묻더군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을 때 어묵을 내놓고 팔기 시작하며 아이들에게 어묵국
물을 공짜로 주고, 가끔 어묵도 나눠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름을 외우고 늘 반
겨주며 관심을 갖자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기 아저씨가 내 이름도 알고 어묵국물
도 공짜로 주고 스튜어디스가 떡볶이를 만들어요”라며 이야기하더라는 것. 그렇
게 동네 작은 분식집은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인근에 산재해 있
는 봉제공장에 간식을 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한국인이면 아이에서 어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인데다가 가격 부담이 없
잖아요. 우리 체인점의 매출이 좋은 이유는 온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이면서 계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한국인의 평생 별미이기 때문입니다.”

오픈 후 14개월이 됐을 때 우연히 방송을 탔다. 아버지가 튀김을 만들고 딸이 떡볶이를 만들며 길거리 음식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집으로 소개가 되면서 큰 화제를 몰고 왔고, 이즈음 매장을 이대 근처로 옮기면서 ‘아버지튀김 딸떡볶이’라는 상호로 거듭났다. 아딸은 기존 분식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메뉴를 선보였다. 두꺼운 튀김옷에 눅눅하던 옛날 튀김과는 달리 얇고 바삭한 튀김을 만들어 식감을 살리는데다 웰빙 트렌드에 맞춰 허브를 첨가해 향과 맛을 더했다. 직접 개발한 개운한 뒷맛의 천연 양념장으로 조리한 떡볶이는 쌀떡과 밀떡 두 가지를 준비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깔끔한 인테리어에 위생설비를 갖추고 점주와 직원 모두 유니폼을 착용해 눈길을 끌었으며, 비닐봉지가 아닌 종이봉투에 음식을 담아 기존 분식점과 차별화하는 데 성공했다.

(주)오투스페이스는 이제껏 체인모집광고를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가게를 찾아온 이들의 요구로 하나둘 가맹점을 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늘어난 가맹점이 100여 개에 이르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그제야 본사 사무실을 차렸을 정도다. 현재는 500여 개에 이르는 가맹점들이 전국에서 성황리에 운영중이다.

“체인모집광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다



가족이 먹지 못하는 음식은 만들지 않는다는 (주)오투스페이스는 재료선정과 조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주)오투스페이스는 아딸 체인점 2,000개를 목표로 두고 있다.

했기 때문입니다. 금호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할 때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마음을 체인점주와 직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성공과 돈은 저절로 따라오더군요.”

그래서 그는 체인점주들에게도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닌 나의 정성과 마음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늘 강조한다. 그러면 고객들은 끊임 없이 매장을 찾아오고, 수익은 저절로 올라간다는 것. 기업은행 둔촌동지점의 김태권 지행장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고객을 맞이해야지 그저 단순하게 고객으로만 대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철저한 사업가정신과 고객중심의 사고에서 이 대표께 배울 게 많습니다. 마인드와 철학, 제품개발과 섬세한 전략, 사회에 대한 환원 등이 남다른 분이세요. 음식을 만들 때도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정직한 회사로, 후발주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도록 철저한 연구개발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이경수 대표는 자신이 체인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은 첫 마음을

잃지 않고 한평생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회사가 부도가 나가나 없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이 떠안게 됩니다. 체인점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시작하는지를 생각하면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어요. 10년 이상 직장생활하면서 꼬박꼬박 모은 돈을 투자해 어렵게 가게 하나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정말 싼 가격에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통제하지 않아도 점주들도 본사를 믿고 따라오지요.”

현재 ㈜오투스페이스는 아딸 체인점 2,000개를 목표로 뛰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4년부터는 아딸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허브, 감탄’을 신촌에 오픈했으며, 산소 웰빙카페를 콘셉트로 한 ‘오투스페이스’도 운영중이다. 기존 브랜드를 꾸준히 관리하는 한편, 제2·제3의 브랜드를 만들어 오랫동안 영속하는 회사, 더불어 함께 하는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이경수 대표의 바람이자 계획이다.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오투스페이스를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 글_오인숙(자유기고가) | 사진_주병수

그의 성공에는 이유가 있다

이경수 대표의 성공 노하우

- ✦ 사람에게 집중하라 : 사람에게 집중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고객이든 점주든 직원 이든 모두에게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사업은 저절로 성공에 이른다.
- ✦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진행하라 :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금물이다.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 맛에 대한 한결같은 고집 : 가족이 먹지 못하는 음식은 만들지 않는다. 원재료를 선정하고 유통하고 조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가족을 생각한다.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주방시스템을 갖추고, 100% 순식물성 기름과 천연재료로 만든 떡볶이소스를 쓰며, 식품 첨가물과 화학조미료 · 방부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매월

관리비 만원
깎아주는게 어디야!



₩ 10,000



IBK My APT 카드

아파트 관리비, IBK기업은행이 깎아드려요

아파트 관리비, 이제 카드로 내세요
마감날 잔액 채길 필요 없고, 일일이 은행갈 필요도 없고
IBK My APT 카드로 내면 매월 10%씩 최대 1만원까지 할인됩니다
아끼는 주부 마음, IBK기업은행이 들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10% 할인 (최대 10,000원)

- GS25/세븐 일일당 60원 할인
- 통신회 3% 할인
- 영화 2,000원 할인
- 외식 10% 할인
- 주요 할인점 30~60% 할인
- 명품점, 할인점 무이자 할부

[카드신청은 전국 시장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www.ibk.co.kr이나 전화1566-0088로 발급 가능]

“관리비 깎아서
디저트 싹어요~”



자수정 분말을 첨가한 Up-Grade 고무장갑 마미손 자수정 개발

대한민국 대표 고무장갑 마미손

‘마미손 자수정’은 천연생고무에 세계 5대 보석의 하나인 자수정(紫水晶) 분말을 추가하여 인체에 좋은 원적외선을 내주는 최고급 기능성 웰빙 고무장갑이다.

23년간 품질제일의 고무장갑으로 주

부의 사랑을 받아오고, 국내 최초로 안전마크(S)를 획득한 마미손이 소비자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웰빙 고무장갑 자수정을 개발했다.

2월의 탄생석 자수정(Amethyst)은 행운·평화·건강을 상징하는 귀한 보석으로 신비한 자색의 광채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심기(心氣)를 보하고, 놀람을 진정시키며, 폐 기운을 안정시키고, 초기 당뇨를 완화해주며, 피부에 난 농증상을



약화시키고, 불임 치료에도 사용한다. 또한 물에 자수정을 넣어 복용하면 잔병이 없고 피부가 곱게 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어, 예로부터 자수정이 인체를 보호하며 여성 미용용으로도 널리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기능이 뛰어난 국내산 천연 자수정은 황토(진흙) 암반 천공에서 천만년 열수에 의해 생성되는 육방정계(六方晶系) 고급보석으로서 물질 정화력이 뛰어나며, 초미립형 입자는 뇌파를 안정시켜주고, 규칙적인 생체 파동으로 인체 대사작용을 도우며,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하는 첨단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품질과 기능에서 뛰어나고, 인체에 유용한 세계 최고수준의 웰빙 고무장갑 ‘마미손 자수정’을 자신 있게 추천한다.

● 기업은행 서교동지점 거래기업

● ㈜마미손(대표:김수동)

☎ TEL 02-338-2103~8

기업은행에서 추천하는 우량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로, 위촉된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시대
꾸러미

임신에서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를 기르는 이야기 <출산에서 교실까지>, 남성들의 땀과 인내 그리고 우정을 이야기하는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잊을 수 없는 그 시절, 잊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사랑의 계절>을 함께 만나보세요. 매주 월요일 <출산에서 교실까지>, 목요일 <장용의 단결! 필승! 충성!>, 토요일 <사랑의 계절>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 꾸러미 하나
출산에서 교실까지
간호사가 낳은 아이?
고혜숙 님

● 꾸러미 둘
장용의 단결충
일직사관과의 하룻밤
백성훈 님

● 꾸러미 셋
사랑의 계절
월급 두 배와 바꾼 사랑
강정숙 님



• 내지 일러스트 박지현

간호사가 낳은 아이?



● 글_고혜숙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008년 12월 25일 아침 9시, 아침을 먹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배가 주기적으로 사르르 아팠습니다. 시간을 재보니, 정확히 10분 간격이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진통이 있다고 말하고, 신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출근했던 신랑이 11시쯤 왔는데, 진통이 3분에서 5분 사이를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런데 긴장한 신랑이 10분이면 갈 병원을 30분을 헤맸습니다. 한참을 돌아 12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내진 후, “40%가 진행이 됐다”며 “어머님, 누워 계세요” 하고는 그냥 가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죽겠는데 간호사는 오지 않고, 사방에 커튼이 쳐진 곳에 혼자 있으려니 겁도 났습니다.

주변에선 산모들의 신음 소리밖에 안 들리고, 설상가상으로 속도 울렁거리기 시작더라고요. 때마침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신랑을 보며 “오빠, 나 토 할 거 같아”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우욱 하자 당황한 신랑이 일단 손으로 받고는 급히 간호사를 불러 봉지랑 휴지를 받아 치웠습니다. 아픈 상태에서도 신랑한테 감동받았습니다. 더러워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양손으로 받아 내더라고요.

오후 4시,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전에 검진할 때 선생님께서 “제발 크리스마스이브랑 크리스마스날에만 오지 마세요. 성가대에 서야 해요” 하고 농담식으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선생님, 크리스마스날인데

어떻게 해요?”라고 물었더니, “제일 축복받는 날이잖아요. 힘내세요”라고 해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생각보다 자궁이 작아 아이가 나오다가 낄 수도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주는 연습 2번을 하고 나자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네. 어려워” 하셔서 아픈 거보단 아이가 잘못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간호사 한 분이 제 위로 올라오셨어요. 제 배에 무릎을 올리고 손으로 밀어내더라고요.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힘주고...자, 엄마 다시 한번 갑니다. 하나 둘 셋!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 머리가 보이는데 이렇게 오래 끌면 위험해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나와야 해요. 정신 차리고 힘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란 말에 손잡이를 다시 잡고 손에 힘주고 있는데 간호사가 자세를 고쳤습니다. 오른쪽 무릎은 제 배를 밀고 왼쪽 다리가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제 왼팔을 누르는 겁니다.

‘아, 이러면 팔에 힘 안 들어가는데’ 하고 말할 새도 없이 의사 선생님이 “자, 마지막입니다. 한 번에 갑시다. 하나 둘 셋! 힘줘요” 하는 말에 제 위에 있는 간호사가 오른쪽 다리로는 가슴을 누르고, 왼쪽 다리는 제 왼쪽 팔을 무릎으로 누르고 엉덩이로

는 제 얼굴을 눌렀습니다. 그러잖아도 숨쉬기도 힘든데 엉덩이가 입을 막아 숨도 못 쉬겠고, 팔엔 힘도 안 들어가고 의사 선생님은 “엄마, 힘줘요. 엄마, 힘주라고요. 애기 위험



해요. 힘줘요” 하고 정말 이수라장이었습니다.

“나왔다!” 의사선생님의 외침과 이어지는 “아, 다행이다. 엄마, 아키는 간 호사가 낳은 거예요. 간호사 아니었음 어쩔 뻔했어요?” 라는 선생님의 말씀.

그렇게 2008년 12월 25일 오후 4시 45분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보니 온몸에 멍 자국이었습니다. 특히 간호사가 올려놓은 다리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얼굴이랑 목, 눈동자까지 싹싹 줄이 다 터져 울긋불긋. 그래도 제 자신이 어찌나 자랑스럽던지 앞으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쳐나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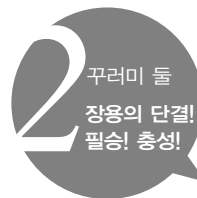
면회를 온 친구가 내 얼굴을 보더니 “너, 괴물 같아” 하고 놀려도 싱글벙글 웃는 여유까지 생기더라고요. ‘미혼인 내가 뭘 알겠니?’ 싫어서요.

미역국 국물을 조금 마시고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입방정 떨어니 그대로 됐네!” 제가 입신을 하고 예정일이 12월 29일이라는 말에 “난 크리스마스날만 안 낳으면 돼” 라고 했는데 딱 하니 크리스마스날 낳았고. “설마 그 어렵다는 O형이 나오겠어” 했는데, O형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친정가족은 네 식구 모두 B형입니다. 저희 시댁은 신랑 포함 네 식구 모두 A형이고요. 그래서 “설마 그 어렵다는 A형과 B형 사이의 O형이 나오겠어?” 했는데, 우리 아들 O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혈액형검사 다시 해 달라고까지 했더니깐요.

하지만 혈액형 때문에 “어디서 주워온 거 아냐?” 하고 농담하고 싶어도 신랑과 아들 얼굴을 보면 절대 못 합니다. 똑같아도 아주 꼭 빼다 박았거든요. 온몸을 통틀어 저 닮은 데라곤 입술밖에 없을 정도로 봉어뽕이에요. 저희 아들,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간호사님! 참엔 얼굴에 엉덩이 대고 제 팔 눌러 많이 미웠지만 그래도 간호사님 덕에 건강하게 낳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직시관과의 하룻밤



● 글_백성훈 |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0년 전, 인천에서 병장으로 진급을 했을 때 일입니다. 저희 부대는 육군 유일의 대공전담 부대로 서울과 경기도 대공을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중대는 인천시내 민가·아파트·대학교 등으로 둘러싸고 있는 아 마 대한민국 육군 중에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부대일 것입니다.

모든 군생활이 편해지던 막 병장으로 진급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부 서장인 정비관이 급하게 호출해서 행정실로 달려갔습니다.

“선봉, 병장 백성훈 행정반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정비관 옆을 보니까 얼굴은 하얗게 뜨다 못해 창백하고, 몸은 마르다 못해 불쌍하게 보이는 신병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병이 왔는데 네가 내무실로 데려가 인사시키고 챙겨줘라.”

신병을 내무실로 데려간 저는 후임에게 관물대 정리를 시키고 정비창고로 가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어이 신병, 어디 사냐?”

“네. 이병 김정길. 인천 삽니다.”

“아! 인천이 다너희 집이냐?”

“아닙니다. 인천 주안역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오! 주안역이면 부대랑 엄청 가까운데.”

“네. 버스 타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 여자친구는 있냐?”

“네. 있습니다.”

“어디 사냐?”

“용현동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그래? 아, 여자친구 예쁘냐? 사진 있어?”

그런저런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신병이 자대로 배치받은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조점호가 끝나고 근무표가 내무실에 있기에 확인을 해보니 ‘02:00~04:00/ 위병소/ 병장 백성훈, 이병 김정길, 일직사관: 중사 김OO’였습니다.

“아 정말. 근무를 대체 어떻게 짜는 거야! 아, 이 상병! 근무 이따위 밖에 못 짜? 새벽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싫은데. 위병소 최고선임인 나를 이 시간에 집어넣었냐? 너 군생활 꼬이고 싶어?”

“백 병장님!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지시로 고참급으로 새벽에 근무를 세우라고 해서...”

“거참, 군생활 꼬인다, 꼬여.”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내무반에 누웠는데 불현듯 떠오르는 한 가지.

‘어라. 일직사관이 우리 선임하사님이고 신병 여자친구가 이 근처 산다고 했지? 신병에겐 멋진 선임이 되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신병 여자친구에게 잘 보여 아가씨를 소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녁 근무신고가 끝나고 신병을 정비창고로 불렀습니다.

“너 여자친구 이 근처 산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전화해서 근무 시간에 찾아오라고 해.”

“네? 정말입니까?”

“자식이, 내가 너랑 농담 따먹기 할 짬밥이냐? 시간 잘 맞춰서 오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휘통제실에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서는 녀석을 불러 “일직사관 이 자리를 뜨면 바로 위병소로 신호를 넣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 근무교대를 하고 위병소에 자리를 잡고 기대고 있는데, 위병소 맞은편에 어떤 아가씨가 이곳을 주시하고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신병 여자친구인 걸 알고 내려가서 불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길 이병 선임 백성훈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하고 인사를 마친 뒤 신병과 여자친구를 위병소 뒤쪽 면회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렇게 면회실로 들여보낸 뒤 저는 오늘이 지나면 소개받을 아가씨를 생각하며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는데, 저쪽 막사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헉! 큰일났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일부러 수화를 크게 하며 신병이 들고 얼른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무리 정비 선임하사고, 나랑 친하며, 천사표라 하지만 근무시간에 그것도 민간인을 부대로 불러들여 신병을 데이트하게 했으니 ‘아, 군생활 20개월 만에 드디어 영창을 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전 소개받을 상상속의 아가씨가 악마로 변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보초선 3보 앞으로.”

모든 수화가 끝나도 눈치 없는 신병은 반응이 없었고, 일직사관은 위병소로 다가왔습니다.

“어이! 백 병장. 근무 잘 서고 있어? 어! 왜 혼자야? 후임은 어디 갔어?”

“저, 배가 아프다고 해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장난기 많고, 사람 좋기로 한이 없던 선임하사는 손전등을 들고 위병소 옆에 있는 화장실로 걸어가 문을 하나하나를 확 열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제발! 이 눈치 없는 신병아. 빨리 나와라.’

그러나 그건 저의 부질없는 바람이었습니다. 대체 면회실 안에서 뭘 하는 지 신병은 반응조차 없었습니다.

“백 병장, 후임 없는데. 어디 다른 화장실에 간 거야?”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사실에 최대한 동정이 묻어 날 수 있도록 포장을 해서 말이죠.

“그게 말입니다. 신병이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기에 집도 이 근처라고 해서 잠시 불러서 만나게 해 줬습니다. 저기 면회실 안에 있습니다.”

“뭐야?” 약간 얼굴이 굳어진 일직사관은 면회실로 걸어갔습니다.

‘아, 드디어 나의 편하디 편한 군생활이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그런데 뒤에서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김 이병! 좋은 이리줘. 데이트하는데 좋은 두고 해야지.”

일직사관은 총과 단독군장을 받아 자신이 착용하고선 제 옆으로 와서 좌경계총을 하고 서 있는 겁니다.

“야, 백 병장.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너무 하잖아?”

“죄송합니다. 워낙 신병이 힘들어 하기에 챙긴다는 생각에...”

“그래! 그래도 백 병장이 신병을 생각해 이런 일을 벌인 거니깐 내가 이번은 그냥 넘어간다. 앞으로는 조심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와 일직사관은 2시간 동안 위병소에서 서로 좌경계총을 하고서 근무를 섰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직사관과 하룻밤을 보낸 뒤, 그 시간 지휘통제실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상황병에게 무서운 응징을 한 저는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또한 무사히 26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일로 결국 소개를 받은 아가씨는 지금 저와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고요. ♥



월급 두 배와 바꾼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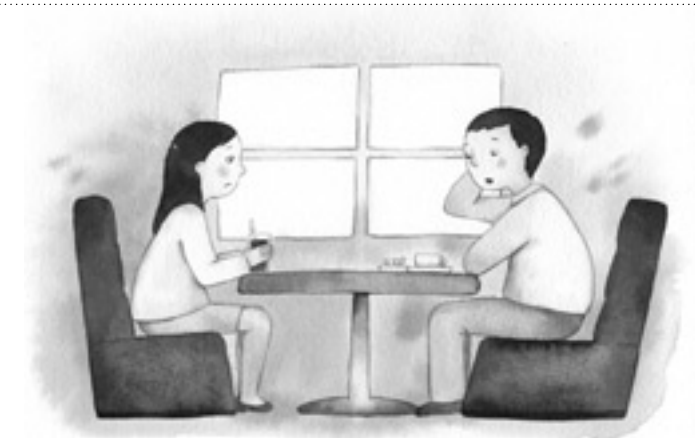
● 글_강정숙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저는 처녀 때 구두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구두재단을 배워 돈을 좀 많이 벌어보려고 대부분 남자들이 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재단을 하다보니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가위로 엉뚱한 곳을 잘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생겼고, 비뚤어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다들 이해를 해줬고, 주의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남자만 까칠하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났을 때쯤입니다. 하루는 그가 퇴근길에 쪽지를 내게 살짝 건네주고 나가더군요. 열어보니 ‘신당동 조흥은행 건물 대영다방으로 나와요’ 하고 써 있었습니다. 걱정이 돼 저녁도 못 먹고 초긴장 상태로 다방 입구까지 갔는데, 들어가기가 겁이 나 유리문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구석 자리에서 그가 담배를 피우며 나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웬일로 이 남자가 나를 보더니 씩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면서 정중하게 “앉으세요” 하며 예의를 갖추더군요.

전 의외의 모습에 얼떨떨했습니다.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이 남자는 계속해서 담배만 피우고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먼저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앞으로는 잘 하도록 노력할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저, 그게 아니고, 저” 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리면서 저를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떨린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차를 마시려는데 이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 저 사실 제가 외롭거든요. 아버지가 재혼하셨고, 핏줄이라고는 달랑



누나 한 분이었는데 몇 달 전에 사고로 돌아가시자 아버지도 충격을 받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미스 강한테 화를 냈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 저, 사실은 미스 강한테 부탁하고 싶어서요.”

“무슨 부탁요?”

“음 저, 저 저의 친구가 되어주면 안 될까요? 외로워서요.”

그는 또 담배를 꺼내 피웠습니다. 저는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기다릴게요.”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수십만 가지로 생각을 해도 날이 새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밥을 먹으려니 부드러운 쌀밥이 모래알처럼 깔끄러워 먹지 못하고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도 잠도 못 자고 아침도 못 먹은 표정으로 나타나더군요. 애써 시선을 피하면서 일을 마치고 또 잠을 자려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스터 장,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직 어리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장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고요. 미스터 장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날 밤, 창문이 뚝뚝 열리더니 쪽지가 날아오더군요,

‘저는 미스 강보다 훨씬 더 부족합니다. 미스 강에게 고백을 하기까지는 한 달 이상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어렵게 그 자리를 마련해 입을 열었던 것이고요, 미스 강에게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 그렇게 쉽게 자르지 말고 생각을 좀 더 해보고 결정해주시면 고맙겠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후 쪽지를 몇 번 더 받았지만 제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까칠한 성격부터 싫었고, 반듯한 외모에 춤을 잘 추는 것이 바람둥이 기질이 다분했고, 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싫었습니다. 그때 저의 이상형은 못 생겨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바람기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내가 그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자 그 사람도 불편했는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 후 3, 4년 지났을 때, 저도 이제 능숙한 재단사가 돼서 새로운 디자인도 개발하면서 사장님한테 인정받고 일할 때쯤 한 친구가 제의를 했습니다.

“야, 너 다른 공장 사장님이 월급 두 배로 준다고 오라는데 가볼래?”

“정말? 내가 가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럼. 너 정도 실력이면 어디가든 대접받고 일할 수 있지.”

나는 며칠간 생각하다가 사장님에게 결혼하기 위해 시골에 가겠다고 말하고선 그 친구가 소개한 공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들어서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내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때 그 남자 미스터 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내가 바라던,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결국 월급 두 배로 받으려다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지금까지도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 TV 봐도 돼요?”

여름방학 첫날 아침, 평소에는 학교에 가라고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아들이 일찌감치 일어나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돼요. 방학 첫날부터 TV 본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럴 시간 있으면 책 읽어요.”

아버지·어머니가 출근하고, 누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학특강 원어민 영어수업을 들으러 가면 한 시간가량 아들 혼자 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혼자 집에 있는 게 마음 편하지만 머리가 맑은 아침부터 TV를 보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당연히 TV를 보라고 허락할 줄 안 모양입니다. 순간 얼굴에 당황스러움과 실망의 빛이 스쳐지나갔습니다. 들뜬 목소리에서 하소연하는 목소리로 갈아탄 아들이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아버지, TV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좀 강한 어조로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TV를 보게 해달라고 계속 투정을 부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TV 보기의 희망이 사라진 아들은 안방 침대에 누워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단을 치러다가 아침부터 큰소리 내기가 싫어 못 들은 척 내버려 두고 거실로 나오는데, 아내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할 테니까 봐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아들에게 TV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는 아들에게 TV를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을 하면서 우리



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으면서 말입니다.

‘그럼, 보지 말라고 한 나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지?’

거실로 향하던 발길을 멈추고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이고 혼자 집에 있는 애한테 TV 좀 보게 해주지 뭐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구냐는 게 아내의 생각일 것입니다. 사실 저도 흔쾌히 TV를 보라고 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지 말라고 한 걸 그 자리에서 아내가 보라고 하면 아버지인 저는 뭐가 되나요? 아버지의 권위를 따지기 전에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이번만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보다는 어머니의 말을 우선시합니다. 아이들에게 조용조용 이야기를 하면 ‘말발’이 안 먹힌 지 오래고, 목소리 톤이 좀 높아져야 겨우 말을 듣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오후 2시부터 숙제 시작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은 듣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 ‘아버지의 잔소리가 또 시작됐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화를 내고,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었지만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회초리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회초리를 안 들어도 알



아들을 나이가 됐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하여간 요즘 들어 더 아버지의 권위가 서질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권위라는 건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세워주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힘으로 주변에 압력을 가하는 건 진정한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란 내가 지닌 힘으로 주변에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나를 '존경'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가장의 권위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 때, 아이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할 것입니다. 결국 권위가 없다는 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내내에게 한 마디 하려다가 그냥 참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사이에 두고 부부 사이에 묘한 신경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 중 하루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딸 어진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만날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고, 일찍 들어오는 날에도 탁구나 치러 가시고... 저희하고도 좀 놀아주세요.”

결국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가장의 슬픈 현실이지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권리만 찾으려는 결과입니다.

흔히 아버지를 ‘가정의 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속을 들여다보면 가족이 아버지를 섬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스스로 섬이 되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섬이 자꾸만 물에서 멀어지려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변화와 노력이 없으면 섬은 부유물처럼 점점 더 물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물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무언가를 할 때라고 마음속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이래저래 생각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

● 김정수 씨는 초등학교 2, 4학년에 다니는 남매를 둔 아버지로,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글로 써 매체에 기고하고 있는 시인이다. 시집으로 《사람 속의 사람이 있으며, 책 만드는 것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조금은 넓은 아버지다》.

아기는 다 알아듣는대요

학교 앞 단골식당 주인아주머니는 충청도 분이신데, 구수한 사투리처럼 음식 솜씨도 툭툭하다. 달걀 라면 한 그릇을 시켜도 아주머니는 투박한 그릇에 나뭇잎이며 부침개며 듬뿍 얹어 내온다.

“선상님, 많이 자셔유.”

“아이구, 너무 많아요. 다 못 먹어요.”

“아녜요. 아덜 갈키느라 애쓰시는디, 배 금방 꺼져유. 다 자시고 가유.”

늘 웃는 얼굴로 음식을 들이미는 통에 딱히 거절도 못 하고 다 먹기 일쑤다. 조금만 과식해도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는 예민 체질인데...

오늘 아침, 아주머니는 여전히 웃는 얼굴이면서도 연신 이마의 땀을 훔치며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다.

“아주머니, 뭘 일 있어요?”

“어저께 우리 며느리가유, 얼라를 봐달라고 말기고 갔사유. 얼라 본 지 오래라, 무척 힘드네유.”

그리고 보니 주방 한쪽에 유모차가 있고, 그 안에 아기가 누워 방실방실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손녀인가 봐요? 참 순해 보이네요!”

“야, 순하기는 하요. 그래도 웬 종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려니 힘들구먼유.”

“아기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되잖아요.”

“원 선상님두, 인자 백일밖에 안 지난 얼라가 뭘 알아듣는다고 이야기를 해유. 온종일 짝꿍, 짝꿍 하남유.”

“눈 맞추고요, 무슨 이야기든 해 주세요. 아기는 다 알아듣는대요. 제가 시범을 보여 드릴까요?”



아주머니는 내가 실
없다는 듯이 웃는다.

“아가야, 나는 요 앞
의 학교 선생님이야. 사
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나서 일할 수 있단다.
나는 아침마다 네 할머
니가 끓여주시는 라면
을 맛있게 먹고 덩치 큰
학생들을 가르친단다.

아가야, 너도 엄마 젖 많이 먹고 쑥쑥 커야 한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
어야 한다. 어때? 너도 선생님 될래?”

아주머니는 내가 하는 양이 우습다는 듯이 바라보다가 냄비에 계란을 풀
어 넣으며 말했다.

“그만 하셔유. 라면 다 끓었시유.”

유태인들은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기와도 인사를
나눈다고 한다. ‘이 분은 어디에 사는 누구신데,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분이
다’라고 정중하게 소개하고 아기에게도 인사를 시킨다는 것이다.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이러한 교육방식이 유태인을 우수한 민족
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다른 책에서도 읽은 기억이 난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엄마 뱃속의 태아는 6~12주 사이에 소리와 진동
을 느끼고, 4~5개월이 지나면 멜로디에 반응하며, 7개월이 지나면 모든 소
리를 듣는다고 한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의사소통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아의 뇌는 청각에 의해 신경조직의 연결 및 발달이 90%
이상 활성화된다고 하니,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훌륭한 육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주머니, 라면 잘 먹었어요. 잊지 마시고 아이 엄마와 아빠에게 아기와

늘 대화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될 거라고
전해 주세요. 아셨지요? 꼭이요.”

“알았시유. 선생님.”

누가 보아도 잘 키웠다 싶은 아이들을 보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부모와 대화
하는 시간이 많다. 우리 학교에 재학중인 지훈이의 엄마는 아들의 별 시답잖은 이
아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맞장구를 쳐준다. 이룩이, 재철이, 시현이, 면식이 엄마도
그렇다. 모두들 공부 잘하고 활발하며, 리더십 있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의 엄마들
이다.

음악 · 미술 · 체육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중학교 3학년생 서빈이는 이번에도
전교 일등을 했다. 서빈이 엄마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화를 시작했다. 이
제 키가 엄마만큼 자란 서빈이지만 여전히 엄마를 찾는다.

“영어 말하기 대회에 친구랑 한 조로 참가할 건데, 대사를 어떻게 짜야 할지 고
민이야. 엄마가 도와줘.”

“알았어, 함께 생각해 보자.”

“엄마, 내 중국어 발음이 어쩐지 좀 들어봐.”

“그래.”

혼자서도 잘할 능력이 있고 결국은 혼자 힘으로 다 해내면서도 엄마와 함께하
고 싶어하는 서빈이. 무엇이든 강요하지 않고 아이가 필요로 할 때 잘 응해 주는
엄마는 서빈이의 든든한 후원자다.

간혹 자녀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친구처럼 도와주면 혹시 의존적인 아이
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의존성은 부모가 자
녀에게 무엇을 하라 명령하고 강요하거나, 혹은 회유하여 길들이려고 할 때 오히
려 증대된다.

높은 자존감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자녀를 원한다면, 자
녀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으로 첫걸음을 내딛자. ♥

● 신규진 씨는 ‘자기 존중감을 살리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싶어하는 서울 경성고등학교 과
학 · 상담 교사로, 상담 경험을 《기난하다고 실망하는 아이는 없다》 등의 책으로 엮었다.

잘했군, 잘했어! 코드를 맞춰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노래, 불후의 명곡이다. 내 맘 같아선 대한민국 공식 부부노래로 지정했으면 딱 좋겠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쨌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razi.’

‘마누라, 왜 불러요. 외양간 매어 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소? 친정집 오라비 장가들 밑천 해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그 병아리 한 쌍은 어쩌면 씨암탉으로 키워 계란도 받아먹고 나중에 닭으로 제값을 받고 팔려고 먹이던 것일 수 있다. “아니, 당신은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보신이 된다고, 좀 기다렸다가 해 먹지.”, “왜 나한테 한 마디 상의도 안 했어.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런 볼멘소리가 나올 법 하건만 아내는 곧장 “잘했다”고 하며 나아가 “그러게 내 영감”이라고 추어주

기까지 한다.

황소는 병아리 한 쌍과 비교도 안 되는 큰 재산이다. 뿐만 아니라 농사 짓던 시절에는 아주 중요한 생계수단이다. 그런데 마누라가 의논도 없이 친정오라비한테 떡 하니 주어버린 것이다. “당신 미쳤어?”, “당신 친정집은 그걸 준다고 넌을 받냐?”, 원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망설임없이 “잘했다”고 “그러게 내 마누라”라고 만족해한다.

무엇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다른 아닌 가치관, 인생관이다.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에 부부의 코드가 일치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द्या에 부부코드가 일치하면 암탉되기 전에 병아리로 몸보신했다 해도 “잘했다”는 말이 금방 나간다. 재산보다 형제간의 우애가 더 중하다는 코드에 부부가 일치하면 황소를 친정집에 주어도 “잘했다”는 소리가 단박에 나온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부부의 핵심 코드는 ‘서로를 믿어주는 것’이다.



어떤 일을 했든
'잘했다'고 한다
면 부부가 살면서
얼마나 마음 편하
고 큰 힘이 되겠는
가. '그러게 내 영
감, 그러게 내 마누
라'라 함은 내 마
음에 꼭 든다, 나와
네가 일치한다, 이
런 의미가 아닌가.

올해 87세 된 어
편 할머니가 60여

년을 해로하고 작고한 남편에 대해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언제나 서로 생각과 마음이 하나였고, 행복하게 삶을 살았다."

이심전심을 한 번만 느껴도 행복한 법인데, 60년을 언제나 이심전심이었다
니!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언제나 생각과 마음이 하나일 수 있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가치관과 인생관이 같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알고 보니 이들 부부
역시 그랬다. 남편은 '가난한 사람에게 무료진료를 사명으로 알고 살아온' 의
사였고, 아내는 그 남편의 동지였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코드일치' 결혼을 한 사람일 수 있다. 문제는 코드가 다
를 경우 어떻게 이를 일치시켜 갈 것인가이다.

남편과 식당을 하는 40대의 어느 아내, 남편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맛
집으로 유명해져 문전성시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의 식당 창업을 도와주느라 열을 올리다 못해 자기네 식당 코앞에다 이름까

지 똑같은 식당을 창업하게
하니 기가 막혔다.

"우리 손님들이 다 그리
로 가면 어떻게 해?" 아내의
걱정은 당연한 일. 그런데 돌
아온 남편의 답은 간단했다.
"에이, 좀 가면 어때? 우리
손님 많잖아." 그런데 그 아
내가 변했다. "남 도와주는
건 진짜 좋은 일이잖아요."

남편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코드를 일치시킨 것이다. 여
필종부의 의미가 아니다. 올
바른 가치관을 따라 코드 일
치를 시킨 성숙한 자세인 것
이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이
런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
보다 좋은 둘이여라'를 실감
하게 된다.

여성시대에서 김용석 교
수와 함께 4년 가까이 했던
'남자는 왜, 여자의 왜' 코너

가 7월 15일로 끝났다. 그간 많은 애청자들이
이 코너에 여자로, 남자로 살면서 겪는 자신
의 경험과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남녀
가 더불어 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들을 솔직하게 드러내 주었다. 이 시대를 보
여주는 소중한 기록이 아닐 수 없으며, 30센
티미터 가까이 쌓인 그 간의 방송 원고는 남
녀가 더불어 살고자, 그리고 이왕이면 행복하
게살아보고자 함께 노력했던 흔적에 다름
아니다.

○ 백인백색이라 했듯이 남녀를 떠나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사사건건, 일거수일투족 부딪치자고
들면 끝이 없다. 그러나 척추가 바로서면 자
잘한 뼈들이 저절로 바르게 되고 오장육부가
안정되듯이 부부 가치관이 일치할 때 사소한
갈등은 줄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 질 수
있다.

오늘 부부가 함께 <잘했군 잘했어>라는 노
래를 불러보시라. 언제 상대방에게 이런 심정
이었는지를 서로 알려주시라. 그러면서 부부
의 인생코드를 맞춰 보시라. ♥

● 오숙희 씨는 개인 상담소 '해심터'를 운영하며 방송과 강연, 집필 등 대중적인 여성학자로 활동
중이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서 어떤 결혼이, 어떤 만남이 더 성숙한 결혼생활을 위한
밀거름이 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한여름 무더위 이기는 곳

강원도 영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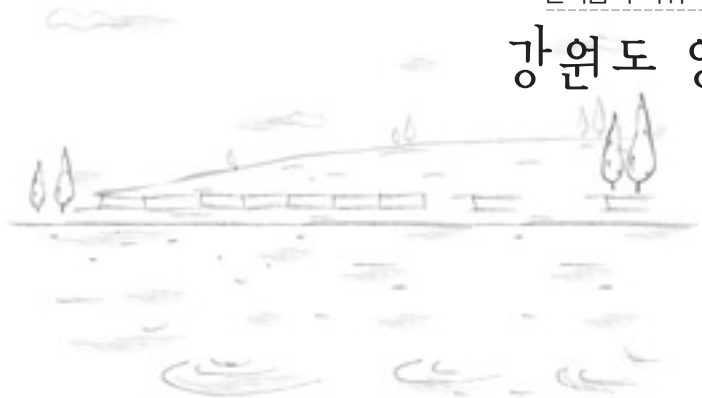


사진 기사를 쓰기 위해 10년 전 찍었던 사진들을 뒤졌다. '박미향의 편편사 진첩'이라는 연재에 들어가는 사진을 찾기 위해서였다. 찾아낸 사진은 10년 전 한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날은 더웠다. 한강에 부는 눅눅한 여름바람이 더위를 부추겼다. 한강을 곁에 두고 있는 수영장들은 수박만한 까만 머리들로 빈자리가 없을 지경이었다. 한강수영장 잠원지구, 아름답고 늘씬한 여인네들이 한껏 제 자랑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들 사이로 긴장한 한 청년이 걸 눈질을 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셔터를 눌렀다. 홀륭한(?) 압컷을 찾고 싶은 수컷의 욕망을 탓할 수야 없다. 사진을 보고 피식 웃었다. 그 청년처럼 나도 '훔쳐보기'를 한 기억들이 있다.

재미있는 사진은 한여름 무더위를 이기는 웃음이다. 여름나기를 이런 사진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면 좋지 않을까! 마침 강원도 영월에서는 '2009 동강국제사진제'가 지난 7월 24일부터 열리고 있다. 8월 23일까지다.

2002년부터 매년 열린 동강사진축제는 올해로 8번째는 맞으면서 '2009 동강



MASKS 가면을 쓴 사람들.

국제사진제'로 이름을 바꿨다. 다이안 아버스 · 윌리엄 클라인 · 맨 레이 · 신디 셔먼 · 조엘 피터 윌트킨 등 묵직한 사진책에서나 볼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총 9개의 크고 작은 전시가 영월 동강사진박물관 ·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열린다. 대표 전시인 'MASKS 가면을 쓴 사람들'에서는 세상의 본질이 되어버린 '가면'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전시된 맨 레이 작품 <카사티후 작부인>(1922년)의 촬영이야기는 재미있다.

맨 레이는 방안에 있는 적은 불빛만으로 후작부인을 촬영했다. 그날 밤 사진을 프린트한 맨 레이는 형상이 흐릿한 몇 장의 사진만을 얻었다. 사진을 보여달라고 보케는 그녀에게 겨우 '사람'으로 보이는 몇 장만 보냈는데, 그 중에서 눈이 세 겹으로 찍힌 사진도 있었다. 어쩌면 초상사진으로는 빵점이다. 하지만 후작부인은 자신의 영혼을 사진에 담았다면서 맨 레이의 성공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

사진여행이 지치면 아름다운 영월의 자연 속으로 폭 빠지면 된다. 단종의 유



배지였던 청룡포는 맑은 물과 우거진 소나무가 볼만 하다.

아이들은 별마로천문대를 좋아라 한다. 별(스타)와 마루(정상), 로(고요한 로)을 붙여서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라는 뜻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천문대다. 별을 관측하기 위해 도시의 불빛을 피한 이들이 모인다.

임진왜란 때 고씨가 피난한 곳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고씨동굴도 가볼만 하다. 선암마을의 한반도지형은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좋은 피사체다. 영월군 서면 웅정리 강변마을인데 산등성이 올라가 바라보면 영락없이 삼면이 바다로 싸인 한반도다.

영월 하면 동강을 빼놓을 수가 없다. 동강 래프팅을 위해서 매년 이곳을 찾는 이도 있다. 동강의 어라연은 '고기가 비단처럼 떠오르는 연못'이라는 뜻인데 맑고 아름답다.

영월에는 온통 농치기 아까운 이야기들이 있다. 사진이야기 · 소나무이야기 · 별 이야기 · 강 이야기 등. ♥

-
- 지방 없는 학교

영월 박물관을 읽다

강원도 영월은 박물관의 고장이다. 1999년 국내 최초의 책 박물관이 개관된 이후 현재 16개의 박물관이 문을 열었고, 더 많은 박물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영월의 박물관 속으로 들어가 보자.

☞ 영월책박물관

책문화에 관한 자료를 발굴 · 수집 · 보관 · 전시 · 연구함으로써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 소중함을 일깨우는 산 교육장이다. 영월책박물관과 호산방(고서 · 아동 · 예술 서점)으로 구성된 영월책마을이 있다.

● 소재지: 영월군 서면 광전리 271-2, 문의: 033)372-1713, 개관시간: 10:00~19:00

☞ 영월곤충박물관

2002년 5월에 폐교된 문포초등학교에 개관했다. 나비와 나방 1,000여 점과 갑충류 1,000점, 동강 유역에 서식하는 곤충 1,000점 등 총 3,000점이 전시돼 있다. 동강 유역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종이 포함되어 있다.

● 소재지: 영월군 북면 문곡리 603-1, 문의: 033)374-5888, 개관시간: 10:00~18:00(매주 월, 화요일 휴관), 홈페이지: <http://www.insectarium.co.kr>

☞ 호아지리박물관

지리학의 역사와 종류 등 지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직접적인 체험도 할 수 있다. 단 순한 유물의 전시 진열과 관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고 학문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회 교육 현장이다.

● 소재지: 영월군 수주면 무릉3리 1090-6, 문의: 033)372-8872, 개관시간: 10:00~19:00(매주 월요일 휴관), 홈페이지: <http://www.geomuseum.co.kr>

☞ 영월화석박물관

영월 지역, 태백 지역 화석을 비롯하여 세계각지에서 수집한 희귀한 삼엽충과 암모나이트 등 다수를 전시하고 있다. 영월지역에 분포돼 있는 화석류 발굴체험이 준비돼 있어 자연과학 현장체험지로 제격이다.

● 소재지: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203-19, 문의: 033)375-0088, 개관시간: 10:00~18:00(월요일 휴관)

☞ 조선민화박물관

2000년 7월 29일 제4회 영월동강 뗏목축제에 맞추어 개관했다. 조선시대 민화 3,000여 점의 소장품 중 여해도와 화조도, 까치와 호랑이, 구운몽도 등 조선시대 백성의 꿈과 사랑이 담긴 대표적인 진본 200여 점과 현대 원로 화가의 기증작품 및 전국민화공모전 수상작 등 100여 점이 조선시대 고가구 등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 소재지: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 산 87-2, 문의: 033)375-6100~1, 개관시간: 10:00~18:00, 홈페이지: <http://www.minhwa.co.kr>

〈무한도전〉의 도전

록 음악이 한창 사회 비판의 메시지를 담던 시절, 록 팬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 MBC 〈무한도전〉 팬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지도 모른다. “〈무한도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물론 〈무한도전〉은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요즘 이 프로그램의 행보는 범상치 않다. 〈무한도전〉은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한 뒤 관련 상품을 팔아서 열악한 한국 봅슬레이 국가대표를 도왔고, 거의 매회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풍자하기도 한다. ‘궁 밀리어네어 특집’에서는 출연자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구한 ‘부엉이 저금통’을 비춰주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슬쩍 하기도 하고, ‘여드름 브레이크’에서는 주 무대로 재개발로 인해 철거를 앞둔 아파트촌의 황량한 모습을 보여준다.

〈무한도전〉은 직접적으로 공익이나 풍자를 내세우지는 않지만, 늘 세상의 한 부분을 드러낸다. 특히 최근 방영된 ‘올림픽대로 듀엣가요제’는 〈무한도전〉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무한도전〉의 출연자들과 타이거 JK, 윤도현, 에픽하이 등의 뮤지션들이 함께 노래를 만든 ‘올림픽대로 듀엣가요제’는 방영 직후 순식간에 가요 시장을 바꿨다. 발표된 노래 7곡은 모두 음원 차트 10위권 안에 들었고, 앨범은 나오는 대로 매진됐다. 심지어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제시카와 박명수가 함께 부른 노래 〈냉면〉은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무한도전〉이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건 단지 한 곡의 노래가 아니라 한 곡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다양한 이야기들이다. 누군가는 장난치듯 즐겁게 음악을 만들고, 누군가는 진지한 모습으로 음악작업을 하기도 한다. 그 전까지 시청자들에게 음악이 음악 프로그램에서 3, 4분 정도 나오는 한 곡의 노래일 뿐이었다면, ‘올림픽대로 듀엣가요제’는 음악 하나에 다양한 드라마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음악산업이 불황에 빠진 요즘, 〈무한도전〉은 음악이 사람들에게 더욱 즐겁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셈이다. 그 점에서 〈무한도전〉은 일부분이지만 음악에 대한, 그리고 음악계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았다.

그러나 〈무한도전〉이 세상을 바꾸는 도전은 그 다음부터다. 놀랍게도 〈무한도전〉은 ‘올림픽대로 듀엣가요제’로 거둔 모든 순수익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무한도전〉이 불우이웃 돕기를 목표로 판매한 캘린더·모자·티셔츠 등 다양한 관련 상품의 판매 수익 역시 30억 원이 넘었다. 그리고 〈무한도전〉은 최근 1년 동안 직접 베품사를 해서 수확한 쌀을 기부할 예정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들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다. 하지만 한 프로그램이 몇 년 동안 꾸준히 불우이웃을 돕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 〈무한도전〉의 진짜 도전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닐까. ♥



모녀 삼대의 여행

여성시대 찰집이쭈마 자리를 10년 지킨 덕에 다녀올 수 있었던 휴가였다. 휴가의 영순위는 이제껏 말만 늘어지게 해왔던 세 딸과 어머니와의 여행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마침 하나밖에 없는 여조카의(대학 1년생) 기말고사도 끝났겠다, 합이 여자 다섯, 삼대에 걸친 오붓한 나들이의 목적지는 통영이 됐다.

양희경의 녹화가 끝날 때까지 못 기다리고 네 여자가 먼저 떠났고 재래시장과 맛집을 돌아다녔다. 희경이가 내려오면서 외도·육지도 등 섬여행도 함께했다. 아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그날 일정을 정하는 식이었는데, 늘 틀에 박힌 일정 따라 움직이는 입장인 나는 무계획인 계획이 아예 좋았다.

통영시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케이블카도 타고 맛난 꿀빵도 사 먹고 멸치정식, 졸복국밥, 장어를 푹 곤 육수에 된장시락국을 끓여내는 집, 또 배를 기다리며 그냥 찍어 들어간 집까지 화화조미료 안 쓰고 고집스레 주인장의 손맛으로 마련한 밑반찬들이며 김치 각두기가 일품이었다.

통영의 동피랑도 예뻐고, 헐릴 위기에 있던 동네 담장에 예쁜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소문을 타고 많은 이들이 구경을 왔고, 그 덕에 개발붐에서 비켜서게 된 동피랑 맨 꼭대기에서 층무김밥집들이 즐비한 바다를 내려다보면 정말 기분이 좋다.

통영에서 거제까지 가면 또 다른 풍광이 펼쳐진다. 아름다운 해수욕장도 많다. 어느 식물원에 들렀는데 주인장계선 매일 아침 여성시대를 들으신다. 식물원 다 둘러보고 가려는데 “희한한 구경해보겠느냐”고 권하셔서 따로 차 얻어 타고 10여 분 더 가서보니 세상에나 그분이 하나하나 일일이 세워 놓은 키를 넘는 돌 수백여 개에 온갖 난과 이끼가 입혀져 있으니 장가게가 따로 없었다.

거제의 바람의 언덕, 또 그 큰길로 맞은편에 있는 무슨 박물관인가, 아무튼 그 쪽 바닷가 풍광은 제주도와는 또 다른 맛이 있었다. 모녀 삼대. 50대 딸 셋과 팔순 엄마, 열이홉의 손녀딸. 조리하는 것은 아침에 누룽지 끓이고 가져간 밑반찬 꺼내 먹고, 차 마시고, 과일 깎고... 조출하니 부담 없는 하루하루였다. 엄마가 해수온천하고 싶다 하셔서 찾아가보니 하필 그날이 한 달에 하루 쉬는 날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튿날 찾아가 기어이 목욕을 했다. 그런데 물이 짭짤하질 않아 말만 해수인가 싶었는데 진짜 해수는 동네 어귀 아주 작은 대중탕이 있긴 있었다. 나는 1999년 2월 진눈깨비가 어지럽게 흩날리던 겨울날, 울릉도도동항의 좁은 골목안 작은 공중목욕탕에서의 해수 목욕을 지금까지도 기억한다. 목욕을 하고 나서 개운하다, 날아가겠다는 기분이 처음이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해수라서 그렇단다. 뜨거운 해수온천이 좋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다.

그리고 거제도 장승포의 유명한 그 삼선찜뽕집, 국물 맛도 죽여줬다. 건더기가 안 보이고 중국배추 잎사귀만 몇 개 떠 있었다. 그릇째 들고 찜뽕국물을 마신 뒤, 나는 찜뽕과 삼매에 빠졌다. 유산을 역시 서울서는 먹어보지 못한 맛이였다. 이쭈마는 서빙을, 아저씨는 요리를 직접 하시는데 참 보기 좋은 내외분이였다. 도대체 여행 갔다며 온통 먹는 얘기뿐이나 하겠지만, 여자들은 일단 남이 차려준 밥상에 열광하는 법. (외도, 육지도도 이름답기 그지없었다.) ♥



미리 다녀 온 유럽

약속한 대로 우리 가족은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첫 여행은 유럽으로 갔다. 파리에 도착한 우리는 후배의 안내로 에펠탑도 보고, 몽마르트 언덕에 가서 바람도 쐬고, 차도 마셨다. 루브르 미술관에서 책에서나 보던 명작들을 꼼꼼하게 감상하고 왔다. ‘미술관만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왔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상제리제 밤거리를 걸어서 다녔다. 파리의 거리에 우리 가족이 서 있더니, 수고한 이들에게 “네 덕분에 파리 구경 잘 한다”고 농담을 던졌다. 대견하다. 다음 날 우리 가족을 안내 해 준 후배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말로만 듣던 유레일패스를 타고 스위스를 거쳐 이탈리아로 갔다. 차창에서 본 몽블랑과 스위스의 풍경을 그냥 스치기 너무 아까웠다. 틀림없이 다시 오자고 약속했다. 3년 후를 기억하며 남으로, 남으로 내려갔다.

로마에 도착. 여행하면서 관광지를 다니는 것보다 편안한 곳에서 쉬는 걸 더 좋아하는 우리 부부지만 로마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동전 던지는 트레비분수, 진실의 입, 콜로세움 등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눈에 익은 관광지를 구경

하느라 무척 바빴으나, 골목골목, 도로나 건물 하나하나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베니스로 가자는 아들녀석과 밀라노로 가서 오페라를 보자는 나의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마음 착한 아들녀석의 양보로 밀라노로 가게 되었다. 물론 이탈리아 축구리그 팀인 AC밀란의 게임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유혹을 하긴 했지만, 세계패션을 지배하는 이태리 밀라노여성인지 거리 쇼윈도에 걸린 명품들은 하나같이 날아갈 듯했다. 내 평생 꼭 한 번 들러서 오페라를 감상하리라 소원했던 라스칼라 극장으로 갔다. 예약을 못했으나 여행자를 위한 티켓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다.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티켓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전 리카르도 무티 지휘의 라스칼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본 기억이 되살아났다. 앵콜을 하자 강한 발음으로 “쭈썸썸 빠르다~” 하고는 곧 앵콜곡을 지휘했던 무티의 카리스마가 생생했다. 물론 라스칼라좌에 무티는 없었다. <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 그리고 주인공 비올레타. 환상의 하모니였다.

아내는 이미 내가 여러 번 음악을 들려주었기에 감동에 젖어들었으나 두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나이에 내가 그랬듯이, 지루하고 지겹겠지... 내가 유독 좋아하는 아리아 <아! 그이였던가> 음반으로 들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아내와 나는 미주보며 만족한 느낌에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고3 아들 녀석 밤 10시 조금 넘은 이른(?) 시각에 느닷없이 집으로 왔다. 의아한 나는 “웬일이냐?” 걱정스레 물었고, 아들녀석 “아! 공부에 펴(feel)이 안 생겨서요” 한다.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함부로 나무라지도 못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대학에 합격하면 그러니까 내년 1월쯤 유럽여행가기로 약속한 게 있는데, 잊은 건 아닐 테지... 난 이미 머릿속에 여행지의 지도와 스케줄이 꽂았는데, 뭐 별일이야 없겠지? ♥



오랜 친구를 보내며

어려서부터 격투기를 좋아하면서 깨달은 건 ‘핑장합’이다. 바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한 정신력, 자기와의 싸움, 거칠어 보이지만 ‘cm싸움’에 가까운 정교함 등 수련자들이 흘리는 피와 땀에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것이다. 격투기에 관한 나의 이야기가 개인적 완력의 과시와 확언 불가 무용담과 거리가 있는 건 그 때문이다. “야, 한꺼번에 몇 명이랑 붙어봤어?” 땀의 가치를 아는 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다.

이처럼 격투기를 좋아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럽 축구나 메이저리그에 비하면 여전히 마이너 스포츠이고, 특히나 상당수 여자들은 격투기를 싫어하기에 더더욱 그렇다. 회사 선배들 대부분 역시 내가 격투기에 열광할 때면 “와! 또 눈 커졌다”, “애 흥분하는 것 봐” 하고 이내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다. “창호야, 내가 충고 좀 하겠는데, 넌 사람 만날 때 지킬 게 있어. 절대 격투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면 성공이다.” 하긴 마음에 안 드는 상대 앞에서 격투기의 역사 1시간, 록음악의 역사 1시간을 읊었던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나도 잘 안다. 사람들이 격투기에 큰 관심이 없음을, 격투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한때 절친한 선배의 진심어린 충고에 감복하여 명동과 강남역 주변 등 소위 젊음의 거리, 페르몬의 바다를 활보했던 것도 세상의 쓴맛이 준 경험이었다.

하여 이 자리를 통해 지난 수년간의 격투기 사랑을 개인적 공간에 묻어두고 자 다짐한다. 최고의 격투기 영화는 백윤식 주연의 〈싸움의 기술〉이란 케번도 다시는 주변에 하지 않으리라. 다만 마지막으로 그간 격투기 이야기를 관통해 온 핵심을 밝혀두고자 한다.

“어떤 무술이고 외부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다. 상대의 스타일과 장소, 시간, 룰 그 중 어느 것으로부터도 우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신이 밟고 있는 노면의 상태와 그라운드 의 폭, 룰에 따라 대결의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평상시 자신이 익혔던 무술 또한 그 형을 달리하게 된다. 이 같은 점에서 격투가의 절대무공이란 결국 외부의 환경에 열려 있는 개방구조를 띠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근력과 스피드의 절대치뿐만이 아니라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기민함과 두뇌 회전력은 고수의 기본이며,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무공이야말로 절대에 가까운 것이다.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유동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야 함도 물론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종합격투기(MMA)의 탄생은 격투기 역사에 혁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상대적으로 룰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격투 공간은 파이터들에게 자기 외부를 목도케 했으며, ‘실전 공간’에 대한 깊은 사고를 가능케 했다. 또 그림으로써 도장이라는 안정적 공간에 안착, 주변과의 호흡을 게을리 했던 기존 전통 무술의 허구를 고발했다. ‘절대’와 ‘실전 최강’의 구호는 지향점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일 뿐 현실에선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고수의 세계에서는 특정 무술과 문파, 초식의 허세가 발을 딛지 못하게 되었다. 변변한 필살기 없이 늘 전략으로 맞서야 했던 대림사의 ‘용소야’와 특정 필살기의 유혹을 벗어난 ‘60억분의 1’ 효도르 역시 이 점을 증명한다. ‘검성’ 미야모토 무사시 역시 유작 〈오론서〉를 통해 남긴 건 결국 외부와 호흡하는 ‘전략’과 ‘처세술’이지 않은가.” - written by 이창호

라파엘로의 <라 포르나리나>

르네상스의 대가 라파엘로는 자신의 정부 마르게리타 루티를 모델로 <라 포르세리나>라는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왼쪽 팔 상박에 팔찌를 썼는데, 자세히 보면 라파엘(RAPHAEL)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또 왼손 약손가락에도 반지를 썼다. 한마디로 라파엘로의 여인이라는 의미다. 여인이 결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관능과 정숙의 뉘앙스를 동시에 풍기는 것은 이처럼 그녀가 오로지 자신만의 남자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나를 보세요. 나는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마르게리타는 로마의 산타 도로테아에서 제빵사 프란체스코 루티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가 '라 포르나리나(제빵사의 딸)'라는 별명으로 불린 것은 물론 아버지의 직업 때문이었다. 라파엘로는 로마에서 일한 12년 동안 정부를 곁에 두었는데, 마르게리타가 바로 그 여인이라고 전해져온다. 그림에도 마르게리타와 라파엘로의 사랑은 화가와 모델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로 칭송돼왔다. 이처럼 서로 사랑했음에도 라파엘로는 끝내 마르게리타와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라파엘로와 그녀의 관계는 결국 '부적절한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요절한 라파엘로의 임종 의식을 치를 때 마르게리타가 그의 침상 곁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내쫓긴' 것도 교회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르게리타는 라파엘로의 모델로서 그의 위대한 성취를 누구보다 성실히 뒷받침했다. 특별히 그녀는 마리아를 주제로 한 그림의 모델로 많이 그려졌다. 비록 법적으로는 공인 받지 못한 커플이었지만, 사랑으로 합작해 이런 위대한 예술작품을 남김으로써 세월에도 녹슬지 않는 두 사람만의 유대를 오랫동안 과시하고 있다. ♥



*라파엘로, <라 포르나리나>, 1520
유화, 로마 바르베리니 궁